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백서

White Paper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주관 2012 ARKO 미래전략포럼 준비소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백서

Future Strategy Forum
White Paper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백서 White Paper

04 여는 글 06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개요 및 프로세스

Contents

134 함께 해 주신 분들

창의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

문화예술로 꿈꾸는 미래

10 지금, 왜 예술의 가치인가?

16 예술 지원, 국제화와 성공(Funding, Internationalization and Success)

19 2012 뮤지컬 산업을 통해 바라본 예술경영과 문화 정책의 방향성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23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방안

27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증대 – 경영 활동에 문화예술이 만나 창조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30 예술로 변하는 사회, 예술나무 운동 전개

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전망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방향성

40 문화예술 환경 변화와 법 · 제도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

45 변화와 지속: 지방 이전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48 문화재정 및 문예진흥기금 확충 방안

문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방안

52 문화예술 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56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

60 문화복지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

문화예술 장르별 지원 사업 진단

68 문학 71 연극 75 전통예술 79 무용 83 음악 86 시각예술

새로운 문화예술, 통섭과 융합

융복합 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위상

92 융복합 개념과 융복합의 현주소 – KAIST CT대학원 문화기술 융합 사례를 중심으로

96 융복합 시대 예술의 새로운 위상과 가치 – 기술 편재 시대의 예술

100 융복합 환경과 새로운 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방안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중부권(대전)

108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전략 – 'ARTIENCE PROJECT' 사례를 중심으로

112 문화 향유의 기반 창조와 지역 고유 자원의 창조적 활용
– 충북문화재단의 아트플랫폼 사업과 충북문화관 운영 사례

호남권(광주)

1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빛가람혁신도시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1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이전에 따른 역할 재정립과 지역 협력 체계 개편

영남권(부산)

126 청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발전 전략
–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129 국제 교류를 통한 글로컬(glocal) 지역 협력 체계 구축
– 부산 문화예술, 지역과 세계를 넘는 길


ARKO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창의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번 대토론회가 문화예술에 대한 낡은 접근 방식을 바꾸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신인 문예진흥원에서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지식 정보 시대를 거쳐 창의와 창조를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이 발휘하는 창의력이 산업과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변화를 몰고 오는 핵심 역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을 뒤쫓아 가는 추격의 방식이 아니라 남을 앞서 가는 추월의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창의력이 생존의 방법이자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화예술이 소수의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의 전유물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대토론회가 문화예술에 대한 이러한 낡은 접근 방식을 바꾸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여간 총 12회의 정책토론회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정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를 망라한 총 13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문화예술의 현황과 비전을 두루 논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0여 명의 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문화예술인 및 일반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덕분에 보다 생생하고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식 정보 시대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넘어서서 문화예술 시대의 '아트스토밍(Artstorming)'을 실천하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나누는 운동을 더욱 활발히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사 업 개 요

행사명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일 시	2012년 10월 9일~11월 5일(총 12회 차)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빛고을시민문화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대 상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학회 및 교육기관, 일반 시민 등
주 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관	미래전략포럼준비소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협 력	대전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사 업 목 적 및 필 요 성

* 국내 문화예술의 환경 변화 진단 및 적극적인 대응 방안 모색
* 국내 문화예술 정책 전반의 현황 분석 및 향후 개선 방향 도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래 비전과 방향 수립
* 문화예술 단체 및 전문 인력의 통섭적인 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
* 공개 행사를 통한 이슈 공론화 및 분야별 의견 수렴
* 지역문화예술 분야 현황 공유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 모색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개요 및 프로세스

행 사 개 요

'2012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는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래 비전과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과제 도출 및 신규 사업 발굴을 목표로 하여 각각의 주제와 행사를 준비하였다.

창의성의 시대에 더욱 부각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방향성을 논하는 '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전망'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예술 장르별 지원 사업 진단' 비공개 전문가 워크숍이 총 여섯 차례 진행되었다. 한편 예술과 기술의 통섭 · 융합 흐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읽어보고 그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전문가 포럼 '새로운 문화예술, 통섭과 융합'을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을 주제로 지역문화예술의 자생적 발전 사례 및 전략을 논의하는 지역문화 창조 포럼이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을 대표하는 세 지역(대전, 광주, 부산)에서 열렸다.

창의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대토론회)	2012년 10월 17일(수) 10:00~17:4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전망(정책 세미나)	2012년 10월 24일(수) 14:00~17:00	|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문화예술 장르별 지원 사업 진단(전문가 워크숍)	2012년 10월 9~12일(화~금) 총 6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새로운 문화예술, 통섭과 융합(전문가 포럼)	2012년 10월 26일(금) 14:00~17:30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지역문화 창조 포럼)	중부권(대전): 2012년 10월 30일(화) 호남권(광주): 2012년 10월 31일(수) 영남권(부산): 2012년 11월 5일(월)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컨벤션홀 |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 | 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창의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

In the Era of Creativity, the Future of the Arts

대토론회

2012. 10.17. WED

place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창의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 대토론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향후 비전과 정책 지향점을 살펴 볼 수 있는 개막 행사로 개최되었다. 총 3부에 걸쳐 진행된 대토론회의 1부는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문화예술로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역설하는 기조연설을 비롯해 예술 가치 확산의 국내 · 외 대표적 사례에 대한 특별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2부는 예술이 지닌 창의성, 혁신성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사회 · 경제적 효과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였다. 예술 가치 확산과 예술나무 운동 전개를 위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3부에서는 문화예술 현장의 창작자 및 전문가들이 문화예술 나눔과 소통을 주제로 크리에이티브 토크를 진행하였다.

1부 문화예술로 꿈꾸는 미래

사 회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개회사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축 사 **김정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기조연설 **지금, 왜 예술의 가치인가?** /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중앙일보〉 고문
특별강연1 **예술 지원, 국제화와 성공(Funding, Internationalization and Success)**
/ **롤란드 데이비스**(Roland Davies) 주한 영국문화원 원장(Director, British Council Korea)
특별강연2 **2012 뮤지컬 산업을 통해 바라본 예술경영과 문화 정책의 방향성** / **윤호진** 에이콤인터내셔날 대표

2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발제1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방안** / **배순훈**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발제2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증대 – 경영 활동에 문화예술이 만나 창조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 **강신장** IGM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발제3 **예술로 변하는 사회, 예술나무 운동 전개** / **박은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토 론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진행)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3부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

토 론 **어수웅**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진행)
강은일 해금연주가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성석제** 소설가
안은미 현대무용가 | **양성원** 첼리스트, 연세대학교 교수

1부 문화예술로 꿈꾸는 미래

기조연설

지금, 왜 예술의 가치인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중앙일보〉 고문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논하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미키 마우스의 손가락은 몇 개인가? 각자 다른 답을 이야기하겠지만 미키 마우스의 손가락은 네 개이다.

미키 마우스는 1930년대 미국이 경제 불황기의 영웅이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자살을 할 때, 그들에게 희망을 속삭여 주고 힘을 북돋아 준 것은, 경제인들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키 마우스였다. 흔히 인간은 쥐를 나쁜 질병을 옮기는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가 예술의 영역으로 가지고 왔을 때 쥐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미키 마우스, 킹콩, 타잔이라는 3대 히어로들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로 인해 예술의 가치가 대단하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이다. 예술은 정치를 돕기 위해서, 사회의 명랑을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것의 추임새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위개념의 머슴이나 봉사자가 아니다. 예술은 고유의 독자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도와주고 정치의 이미지를 바꿔 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 미키 마우스의 손가락이 몇 개인지 따지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미키 마우스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르게 숫자를 세는 세계가 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교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 교각의 수가 몇 개인지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것이 당연하다. 고복수의 '타향살이'에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 보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신이 타향살이가 몇 해인가는 머리나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꼽아' 헤어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 경제, 과학 등 모든 것이 수로 이루어지는 세계와 미키 마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을 때 떠오르는 영상의 세계는 따로 있다. 이 둘은 대단히 밀접하면서도 매우 다르게 내려져 왔다. 숫자를 몰라도 미키 마우스를 즐길 수 있듯이 정치, 경제, 과학을 몰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기쁨을 알고, 사랑할 때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GDP, 주민 번호, 카드 번호와 같은 숫자 없이는 아침 해가 뜨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소를 짓고 조용한 가운데 함께 식사를 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예술의 가치는 손꼽아 헤어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인데 손꼽아 헤어 보는 것이 압도적으로 우리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거꾸로, 지폐를 생각해 보자. 만 원권과 오만 원권의 가치 차(差)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 원권에 어떤 인물이 그려 져 있고, 어떤 식물이 그려 져 있으며, 어떤 꽃이 그려 져 있는지 아는가? 만 원권에 나오는 매화는 그냥 매화가 아니라 어몽룡의 '월매도'에 나오는 것이다. 명화 중의 명화이다. 우리나라 화폐 속에는 세종대왕, 이퇴계, 이율곡, 신사임당과 같은 우리 역사 속의 지식인들과 예술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명화의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는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미키 마우스 하면 영상이 떠오르고 숫자는 떠오르지 않는데, 돈 하면 숫자는 떠오르고 영상은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는 무리수라는 것이 있다. 피타고라스는 점을 무수히 찍으면 선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점을 아무리 찍어도 선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무리수이다. 원주율은 3.141592……로 3이 아니다. 점과 점 사이는 천문학적 숫자의 거리가 있어 아무리 좁히려 해도 좁혀지지 않는다. 그것이 수의 세계이고, 과학의 세계이며 경제의 세계이다. 원주율을 선으로 나타내면 아주 간단한데,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예술이 상식화되고 대중화되기를 원한다. 예술은 만인의 것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노벨상 중에도 과학상이나 경제학상보다도 문학상이 관심거리가 된다. 그러나 "예술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과 같이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며 어렵다. 예술의 가치를 통속화시키면 정치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

문에 예술이 업신여김을 받고, 하위개념으로 떠도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를 논하고 카를 마르크스를 논하지만 그만큼 존 러스킨에 대해 아는 이는 없다. 애덤 스미스는 알아도 《예술경제론》을 쓴 존 러스킨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애덤 스미스나 카를 마르크스가 말하는 예술의 가치만 논해 진다. 경제의 하위개념으로서의 예술만 알고 있는 것이다. 예술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전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경제, 정치, 사회에 비해서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

21세기에는 다행히도 세계 각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술의 고정 가치와 생명 가치가 모든 경제 가치의 기반이라고 부르짖은 존 러스킨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은 "싸이 덕분에 석 달 동안 수익률이 80%나 올랐다"며 예술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싸이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또 다시 예술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아니다. 이렇게 예술 자체의 생명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나 정치적인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미키 마우스의 손가락이 몇 개인가는 과학과 경제의 문제이다. 몇 천만 장 그려야 하는 영화에서 손가락 하나를 덜 그림으로서 몇 백만 불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경제적 가치는 아주 크다. 옛날에는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릴 때, 손가락을 다섯 개로 그리 나타내려면 잔상 때문에 여섯 개를 그려야 했다. 과학적으로 보면 쥐는 앞다리의 발톱이 네 개이고, 뒷다리의 발톱은 다섯 개이다. 그러므로 미키 마우스의 손가락이 네 개인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다. 이렇게 미키 마우스를 숫자로 따지는 세계와 더러운 쥐를 '미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세계는 다르다.

쥐에게 미키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쥐는 더 이상 수천 마리의 쥐 중 하나가 아닌,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생명체로서의 쥐로 탄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키라는 이름이 시의 요소이고, 예술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미키는 원래 미카엘 천사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이다. 미카엘은 싸우는 천사이다.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미카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키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당시, 미키는 아일랜드인을 비하하여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월트 디즈니는 아일랜드계 2세대 미국인이다. 이런 아일랜드인과 유대인들이 손을 잡고 만들어 낸 회사가 할리우드로 진출하게 되면서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화 산업을 이루게 되었다.

시에서 쓰는 운율처럼 미키 마우스는 메릴린 먼로와 같이 M-M으로 반복되는 아름다운 운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달 언어가 아니라 표현 언어이다. 메릴린 먼로의 본명은 촌스러운데 스타

가 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름이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무슨 역할을 주었는가. "내가 만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다. 즉, 아담은 시인이었다. 쥐에 이름을 붙이면서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쥐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생명 공동체가 생겨났듯이 신이 만든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아담의 역할도 예술의 행위고, 시의 행위이며 창조의 행위라는 것이다.

개는 한낱 동물이었다. 시골에는 개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조금 승격된 것이 흰색이니 흰둥이, 검은색이니 깜둥이, 얼룩덜룩하니 바둑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개가 우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랑을 나누고 소통을 하게 되니 쥐가 미키가 된 것처럼 그 이름들이 정말 현란해 졌다. 한 지인이 개 이름을 '링고'라고 하기에 중국 이름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비틀스의 링고스타를 사모하여 붙인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이 시이고, 예술의 시작이다. 이육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받은 수감 번호인 264번을 본인의 성 이(李), 땅 육(陸), 역사 사(史)로 쓰면서 광야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처럼.

이것은 예술가들의 싸움이다. 예술가는 촛불이나 칼을 쓰거나 머리띠를 두르지 않는다. 예술가는 언어의 싸움, 이미지의 싸움, 근본적인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성춘향이 곤장을 맞을 때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십장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춘향은 언어로서 저항을 한 것이다. 곤장 맞으며 "한 대요", "두 대요" 외치는 소리에 한 구절씩 "일편단심 춘향이가……", 이부불경 이 내 몸이……"와 같이 시를 읊으며 저항을 한 것이다. 또한 이몽룡은 마패로 변학도를 다스리지 않고, 거지꼴을 하고 나타나 촛농을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로 표현하는 시를 쓰면서 저항했다.

이처럼 예술은 숫자를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다. 1984년, 25시, 13인의 아해 등과 같은 숫자를 정치가나 경제가가 쓰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 시인의 언어나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다.

아이작 뉴턴은 몇 가지 공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그는 중력의 법칙은 알았지만 사과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빨갛게 익어 갔는지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지구 인력을 거슬러서 높은 가지에 매달려서 씨앗을 익혀 내는가에 대한 생명의 법칙이야말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 러스킨이 이야기하는 모든 경제의 가

치는 생명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고정 가치라는 말의 의미다.

생명 가치가 경제적 가치라고 생각할 때, 왜 아편을 경제적 가치라 생각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 아편은 노동 가치와 사용 가치가 있지만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생명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편 경제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가치에 고정 가치, 생명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아편이나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나는 살림살이라는 말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살자'의 경제학이 경제의 기반이며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라 매달리는 사과가 생명의 사과이다. 존 케인스는 "경제 활동은 지구의 만유인력에서 떨어지는 뉴턴의 사과가 아니라, 살아서 익고 열매를 맺는 하나의 의지를 담은 사과"라 하였다.

20세기 신비주의, 과학, 수학 등 온갖 것을 통섭한 우스펜스키는 우리가 보는 현상은 가상적의 세계이고, 세계에 숨은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라 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돛대, 교수대, 십자가가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나무로 만들어 졌지만 다른 것이다. 돛대에는 선원이 노동을 하고, 교수대에는 사형 집행자가 사형을 집행하고, 십자가에는 신부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 법을 집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신부, 이 세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이다.

우리는 산업화시대에 땀을 흘렸고, 민주화시대에 피를 흘렸다. 땀과 피는 동물들도 흘리는 것이다. 그러나 눈물은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 가치이다. 우스펜스키는 "돈이 전부인 사람이 돈을 잃었을 때는 전 세계를 다 잃은 것이다. 하지만 한 소녀가 목숨을 걸었던 사랑을 잃었을 때는 문학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고 했다. 돈은 잃으면 그만이지만, 사랑은 잃으면 창조가 나오고 아름다운 시가 생긴다. 사랑하는 자, 생명을 아는 자는 그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의 가치를 남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화, 산업화를 거쳤다. 이제는 생명화 시대가 올 것이다. 피와 땀을 넘어설 눈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크게 말하면 눈물은 공간이다.

싸이의 춤이 전 세계에 번지고 있을 때, 많은 이가 한국의 DNA가, 한국의 싸이가 전 세계에 퍼진다고 말했다. 이것은 문화 제국주의이다. 그것은 히틀러의 언행과 다름없는 것이고, 전 세계는 그 DNA를 가진 자들의 가스실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춤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 춤을 전 세계가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한류는 인류가 보편적인 사랑을 느끼고 공동의 눈물을 흘리며 공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공간의 힘은 이익의 힘보다 엄청난 울림을 준다. 이러한 울림을 한 한국인이 주고 있는 것이고 이에 이웃 나라들이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과 예술의 가치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것이, 전 세계인이 쓰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 훨씬 자랑스럽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DNA가 세계에 번진 것처럼 이야기 한다면 옛날 문화 제국주의를 꿈꾸던 문명론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한류 DNA라는 표현이 아닌 '슈퍼 밈(Super meme)'이라 불러야 한다. 밈은 생물학적 정의가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모방하고 따른 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학회에서도 쓰이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쓰이지 않고 있다.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나누는 귀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예술을 숫자에 의존한 가치로만 이야기할 것이다.

산업화, 민주화가 자랑스럽지만 이것들이 잃어버린 화두, 사랑과 생명, 생명화, 예술 가치, 고정가치야 말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슈퍼 밈이다. 이러한 슈퍼 밈이 세계로 퍼져갔을 때, 그들은 한국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억울한 역사를 지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토론을 통해 잘못된 예술의 가치, 예술의 힘을 바로 잡고 이것이 바른 정치, 경제와 복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본이 되도록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1부 문화예술로 꿈꾸는 미래

특별강연 1

예술 지원, 국제화와 성공
– 영국의 예와 견해

Funding, Internationalization and Success
– some perspectives from the UK

롤란드 데이비스(Roland Davies) 주한 영국문화원 원장(Director, British Council Korea)

Ⅰ. 하원 문화미디어체육위원회

- "예술과 문화유산은 영국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 중 하나이다. 큰 규모의 문화적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 자산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2011.5.)

Ⅱ.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 영국예술위원회(예술위원회)는 정보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 재원을 예술계에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 예술위원회의 재정은 공공 자금, 민간 자금 및 사업 수익 등의 혼합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복권 수익금이 대거 투입되었다.
- 1998년에서 2010년 사이, 예술위원회는 지원 규모를 150% 늘렸으며,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지원을 신청하는 단체는 약 750개이다.

Ⅲ.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 중앙 · 지방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팔 길이 원칙'은 정당 정치의 간섭을 배제시켜나가 예술가 및 예술계를 지원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 이 원칙을 통해 예술가들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창작의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정치가는 예술작품이 문제시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왔다.
- 예술위원회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 예술 사업의 예술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개별 예술 사업의 예술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 정부로부터 예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의 바탕이 되는 '팔 길이 원칙'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위원회가 자체의 정치적, 예술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Ⅳ. 공공예술 지원의 효과

- 훌륭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이 많아지고, 예술계가 활기에 넘치며, 다양한 문화 산업(창조 산업)이 생겨나고 이러한 문화 산업 수출이 번창하는 것은 공공 재정 지원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예술에 대한 투자는 수많은 경제 · 사회 · 문화적 편익들(benefits)을 가져오므로, 예술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부의 다른 재정 투자에 비해 더 효율적이다.
- 예술 부문의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 모두가 문화, 예술, 그리고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문명사회의 징표이다.
- 예술로부터 나오는 사회 · 경제적 편익과 예술 자체의 효능이 상호 배제적인 것은 아니다. 다수의 예술 단체들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내놓는다.
- 예술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이것이 작품의 질과 잠재가능성을 우선하여 광범위한 예술 형식들을 지원하는 일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Ⅴ. 예술 지원 정책의 과제

- 중앙 · 지방 정부의 지출액 삭감은 예술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체 재원이 없는 일부 예술 단체의 적자는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 미국식 민간 후원과 유럽식 공공 지원의 좋은 점을 결합시키는 것이 영국 예술 정책의 야심찬 목표 중 하나이다.
- 1인당 문화 기부가 한 달에 37파운드에 달하는 나라로부터 1인당 문화 기부가 6파운드에

불과한 영국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비주류 작품을 공연하는 소규모 단체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작품만 후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예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공공 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한 감소분을 메우는 일이 개인 기부자(예술 애호가, philanthropists)들의 역할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 따라서 민간 투자는 예술에 대한 공공 재정 투자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부가 수단으로 새롭게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술 단체와 개인 기부자들의 합치된 견해이다.

Ⅵ.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미션

- 영국문화원은 영국의 예술 및 문화 산업 부문과 협력하여 국내 · 외에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보다 통합되고 번영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 또한 자체 자원과 후원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유산을 담은, 건실하고 감동적이며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 보다 폭넓고 다양한 수혜 지역, 보다 확대된 참여 계층, 보다 증대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장려하고 활용한다.
- 모든 활동과 작업에 있어서 예술계, 문화 산업계, 그리고 문화 경제계 간의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 국가적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예술가와 문화 산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경험하고 배우며 서로 관계를 맺도록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한다.
- 문화 교류의 정신에 입각,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최고 수준의 영국 문화를 국제적으로 함께 나눈다.

1부 문화예술로 꿈꾸는 미래

특별강연 2

2012 뮤지컬 산업을 통해 바라본 예술경영과 문화 정책의 방향성

윤호진 에이콤인터내셔날 대표

Ⅰ. 산업으로서의 공연예술의 진화

- 1982년 문예진흥원의 지원으로 '내셔널 시어터'의 프로덕션 제작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대형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만났다. 그 작품이 바로 〈캣츠〉다.
- 이런 공연을 꼭 한국에서 올리겠다는 결심으로 뉴욕에서 공부한 후 만든 작품이 〈명성황후〉(1995년 초연)이다. 이는 대중예술의 새로운 장과 산업화 가능성을 연 작품이다.
- 이를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의 수입이 시작되어, 작품 수가 늘어나고 시장 규모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팽창해 왔다.
-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의 규모는 2,500억 원대이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매출액 100억 원이 넘는 공연이 2~3편이라고 들었다.

Ⅱ. 2012년 뮤지컬 산업, 어디로 가고 있나

– 예술과 경영 사이, 균형의 어려움

- 최근 몇 년간 뮤지컬 산업을 일종의 블루오션처럼 여기고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었으나 그만큼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 실패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술성에 몰두해 시장성과 대중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욕만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경우이다.
-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예술적 가치가 높고 작품성이 뛰어나더라도 대중들의 외면을 받는다면 개인 차원의 실패를 넘어 업계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
- 다른 하나는 무작정 큰 수익을 내고자 소위 '한탕'을 목적으로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유명 라이선스 뮤지컬의 비싼 판권을 들여와 올리는 경우이다.
- 관객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작품의 부실함을 유명 스타나 연예인을 기용하여 가리면 반짝 객석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업계의 수준을 낮추는 역효과를 낸다.
-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돌 기획사까지 뮤지컬 제작에 뛰어들고, 1년에만 150여 편의 작품이 올라오는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 요약하자면, 외형적으로는 2천억 원대 규모를 넘어선 '뮤지컬 전성시대'라고 하나 내부적으로 뮤지컬 업계는 크나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Ⅲ. 포화 상태의 국내 뮤지컬 시장, 위기 타개를 위한 방책

– 국내 · 외로 관객층을 넓히기 위한 시도

- 관객층을 넓히는 첫 번째 방법은 국내 관객층을 확대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뮤지컬 관객층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새로운 관객층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이다.
- 대표적인 사례가 뮤지컬 〈영웅〉부터 시작한 티켓 가격 5만 원, 3만 원 정찰제이다. 이것은 뮤지컬 관객층을 확대해 보고자 시도한 하나의 실험이다.
- 또 다른 방법은 해외 시장의 수요를 노리는 것이다. 〈명성황후〉는 뉴욕 브로드웨이, 토론토, 런던 등지를 순회했고, 〈영웅〉 역시 뉴욕 링컨센터에서 공연했다.
- 최근에는 한류 스타들을 중심으로 〈쓰릴미〉, 〈잭더리퍼〉, 〈런투유〉 등의 뮤지컬이 일본 시장을 겨냥해 현지 공연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외국인들이 우리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명성황후〉와 〈영웅〉 공연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이 주는 감동은 국적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2011년 외국인 국내 공연 예매가 전년 대비 167% 증가했고, 서울시 아이투어 사이트 집계에서도 작년 외국인 관객이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고 한다.
- 이런 추이를 보면 뮤지컬 시장의 관객층을 해외로 넓히는 것은 결코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Ⅳ. 기로에 선 뮤지컬 산업, 향후 필요한 문화 정책은?

1. 꾸준히 공연될 수 있는 창작 뮤지컬의 육성

-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이 공연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현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창작 뮤지컬 지원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 그동안 시행돼 온 창작 뮤지컬 육성 및 지원 정책들은 작품성 있고 가능성 있는 창작 뮤지컬 작품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 특히 퀄리티가 검증된 우수 창작 뮤지컬들이 제대로 뿌리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 '창작 뮤지컬 육성 지원 사업'의 효과는 보다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뮤지컬 〈영웅〉이 티켓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 관객층의 영역을 보다 넓게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업의 지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이제 현재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창작 뮤지컬들이 라이선스 뮤지컬 사이에서 외면 받지 않고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바로 '스테이지 쿼터제'로, 창작 뮤지컬의 대관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창작 뮤지컬들이 매년 할당된 비율만큼 극장에서 의무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 우수 창작 뮤지컬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조만간 뮤지컬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2. 전략적인 해외 시장 진출 – 정책적인 지원과 민간 투자 유도

- 좋은 뮤지컬을 발굴하여 무대에 세울 기회를 주는 것이 기존 정책의 흐름이었다면,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토양을 다지는 것이 현재의 주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미래의 정책적 과제는 바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서, 궁극적으

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고취시키는 문화 전략이다.

- 대표적 사례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다. 이러한 인기에는 꾸준히 K-pop의 존재를 알리고 홍보해 왔던 정책적 지원이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 유행에 따라 쉽게 변하고 지속력이 짧은 대중가요를 넘어 조금 더 오랫동안 문화의 파급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그 답은 바로, 순수예술보다 대중 접근성이 훨씬 높고, 드라마나 가요보다 유행을 타지 않아 장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 공연 문화인 뮤지컬이다.
-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나 〈오페라의 유령〉의 경우 25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명성황후〉 역시 벌써 17년이 넘게 공연되고 있으니 그 생명력을 가늠할 만하다.
- 창작 뮤지컬은 우리 정서에 맞는 소재를 우리의 창작 인력들이 발굴해 만들어 내는 작품들로, K-musical로 부흥한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지닌 문화 상품이 될 것이다.
-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고급 공연문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 최근 수출 제품의 이미지를 고급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고급 이미지 구축이 가능한 뮤지컬과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필요가 있다.
- 정부와 기업 모두는 고급문화이자 대중예술의 속성을 모두 갖춘 뮤지컬의 해외 공연을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드라마, 가요를 잇는 또 다른 한류로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2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발제 1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방안

배순훈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Ⅰ. 가치와 확산

- 시장에서는 비슷한 거래가 반복(공급 · 수요 사이의 피드백 루프 형성)하면서 거래 가격이 수렴하게 되고, 이 수렴된 가격이 거래 상품의 금전적 가치가 된다.
- 그러나 창작이 한 번만 일어나는 문화예술은 반복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시장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 더불어 문화예술은 투입 요소의 가치와 최종 결과인 작품의 가치를 연관 짓는 일도 불가능한데, 이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내재적 가치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이다.
- 또 다른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다른 사회에 위치해 있을 때, 서로 다른 사회 가치관을 어떻게 접근시켜야 하는 문제이다.
- 무엇이 사회적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가치를 사회에 확산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의 독창적인 가치로 인정받는 일이 중요하다.

Ⅱ. 가치 설정과 확산의 복합화

-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신뢰를 받는 창의적인 개인(지도자)의 주관적 견해가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가 된다.
- 민주 사회에서는 의견이 선택되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확산과정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자유 경쟁 시장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확산할 때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많은 시행 오차(리스크 테이킹)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가장 효율적이다.
- 이러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기본 원칙이지만, 현실에는 정보가 평등하게 전달되지 않고, 참여자들의 가용 자원도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세계 시장에서 자국의 참여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자국 시장에서 시행 오차가 활발하게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여기서 문화예술 시장은 금전 중심의 통상적인 상업 시장과 달리, 생산자인 예술가와 수요자인 예술 애호가들이 서로의 관심을 교환하고 거래를 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Ⅲ. 후원자 시장

- 오늘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예술가의 창의성과 후원자의 취향 간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개성에 맞는 후원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 따라서 이런 개인들이 쉽게 만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동등한 계약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 시장은 금전적 가치에 대한 합의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결국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활발하게 시행 오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 문화예술의 수준이 된다.
- 문화예술 부문에서 개인들의 자유가 현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지나치다 싶어도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창작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길게 보면 국가 경쟁력과 연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후원자들은 작품을 공개하여 사회적인 기여를 하기를 원하므로, 후원자 시장에 제공되는 예술작품들은 장기적인 가치를 만드는 형태로 제작된다.

Ⅳ. 상업적 시장

- 상업적 시장에서는 창작보다 확산이 주요한 문제이고, 핵심 과제였다. 대량 소비를 위해 상품은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되었다.
- 시행 오차의 반복과 공통 이해관계의 수렴이 일어나는 곳인 시장은, 상반된 이해를 가진 개인들이 이기심과 의욕적인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 이러한 연유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평등 정신과 사회 통념적인 윤리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는 비교적 관대하게 취급하여 왔다.
- 일본 작가들의 현대미술이 미국 시장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현상이 한국의 문화예술 시장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 한국의 문화예술이 차별화된 확산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국의 거대한 문화예술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홍콩아트페어가 주도하는 아시아 미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규제자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다.
- 장기적인 후원과는 별도로 문화예술 창작가들이 창작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상업적 성공도 필요하다.
- 개인의 독창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적 시장에서는 시장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작품들이 생산되지만, 대중적인 인기가 있더라도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지녀야 지속성이 있다.

Ⅴ. 정부의 역할

- 자유 시장 경제는 시장의 시행 오차를 용납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시행하는 측은 개인이고, 오차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 과거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에 치중하여 시장 기능이 발전하는 데 지연을 초래했다. 반면에 금융 개방 시 시장의 변동성을 규제하지 않았던 것도 국가 위험 요인이 된 바 있다.
- 또한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권장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최대로 허용하되 효율적으로 최적치(最適値)로 수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활동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정부는 여건에 따라 맞춤 설계한 정책을 통해 후원자 시장에서도, 상업적 시장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문화부 산하 예술 단체의 법인화 노력은 독립적인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정부의 역할이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뀌면서 각각의 사례마다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 문화예술 분야에서 후발인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한꺼번에 넘어서는 획기적 정책보다 사례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맞춤 정책으로 사회 진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공공 부문이 개입해야 하는 접점은 어디까지인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부문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손대지 않는 부분은 공공 부문이 개입해야 할 것이다(곽영진).

Ⅵ. 맺음말

- 분명한 것은 정보화 시대에 상업적 시장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문화예술 시장의 세계화 문제에 심각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간접 지원을 통해 후원자 시장과 상업적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나 공공 기관은 문화예술계와의 접점에서 소통 · 융합 ·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필요하며, 복지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김동연).

2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발제 2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증대
– 경영 활동에 문화예술이 만나 창조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강신장 IGM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Ⅰ.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 예외 중의 예외
  -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 147개국
  - 그중 아주 특별한 국가, 대한민국
  -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
- 향후 또 한 번 도약의 열쇠: 인문학과 결혼하라.
- 번지점프 이야기: 기능의 언어 vs. 인문의 언어

Ⅱ. 국도에서 배우는 인문 정신

- 대각선 여행
  - 속초~해남 / …… 백양사 / 《반야심경》 / 참 자유 / 참 행복

    * 고속도로: 추월의 길 , * 국도: 초월의 길

  - 새로운 시: 고속도로와 국도가 협력, 기술과 인문학이 협력 · 소통
  - 최고의 국도: 문화와 예술
- 다른 것을 다르게 보는 힘: Think Different
- 국도에 가서 놀아 보기① 시(詩)
  - 시 공부하면서 만난 짧지만 최고의 통찰이 있는 시
    *그 꽃(고은 시인)/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풀 꽃(나태주 시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고대 중국에서 시인을 일컫는 말: 견자(見者)
  - 또 하나의 엄청난 계기를 마련해 준 작품
    *대추 한 알(장석주 시인) – 일체화
  - 시인들의 창조법: 관찰법, 발견법, 접목법
- 국도에 가서 놀아 보기② 그림 그리기
  - 물고기 그리기 1~3 라운드
  - 아트 워크(art work)/ 바디 씽크(body think)
  - watch different/ think different/ meet different think
  - mix think different/ big-bang think
- 바디 씽크를 경영에 활용하기
  - 씽킹 툴(시인들의 창조법)
  - 연습(운동화, 강물……)
- 브레인스토밍의 시대 → 아트스토밍의 시대

Ⅲ. 국도에 가서 노는 데 목숨 거는 회사: 픽사(PIXAR)

-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회사
  - 스티브 잡스 매입 → 육성 → 매각
  - 1986년 매입(500만 불, 루카스 필림)
  - 2006년 디즈니에 매각(74억 불) ※1,500배
- 대표작: 10타수 10안타
  - 토이스토리(1995), 벅스라이프(1998), 토이스토리2(1999), 몬스터주식회사(2001), 니모를 찾아서(2003), 인크레더블(2004), 카(2006), 라따뚜이(2007), 월-E(2008), 업(2009)
- 픽사의 중심: 픽사 대학(pixar univ.)

– 성격: 임직원 대상의 예술 교육 기관
– 총 과정 수: 110개, 총 직원: 1,500명
– 학습 시간: 최소 4시간/주(교육 참여=업무)
– 목적
*문제 발견 및 창의적인 해결력 향상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팀워크 향상
*행복한 성장 → 자아실현

• 참석자 소감
– "예술은 같은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 창의력을 기르는 데 예술 교육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 "픽사 대학은 픽사에 있어서 …… 영감 그 자체다."
– "예술을 매개로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를 증진시킨다. 이것이 픽사 대학이 존재하는 정확한 이유"

※ 빌 캐포더글리, 린 잭슨 지음, 장상필 옮김,《픽사 웨이》, 쌤앤파커스 펴냄(2010.08.20.)

Ⅳ.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증대 방안

– 경영 활동에 문화예술이 만나 창조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 추월에서 초월로 가는 힘
– 경영이여, 인문학과 문화예술과 결혼하라.
– 시인의 눈, 음악가의 귀, 미술가의 손…… 창조의 원천
– 아트 디렉터가 필요한 시대
*경영학박사, MBA → 법률가, 회계사 → 건축가, 디자이너, 시인, 사진가, 철학자

• 경영 과제를 바디 씽크 과제로 만들자
– 브레인스토밍의 시대 → 아트스토밍의 시대
– 우리 사회에 픽사 대학을 만들자.
*회사, 학교 → 예술을 통한 창조 센터
– 창조는 단체전, 그룹 지니어스가 우리를 구한다.

2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발제 3

예술로 변하는 사회, 예술나무 운동 전개

박은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 문화예술은 본연의 가치인 공공재적인 성격과 정신적인 가치를 넘어서 사회 ·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해 왔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증대되는 추세이다.
-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갈등과 긴장, 사회 양극화, 학교 폭력과 실업률 증가 등 문화예술을 둘러싼 사회 · 문화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이제 사회 통합은 우리 사회가 풀어 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예술은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사회 발전과 통합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용성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나눔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문화예술을 둘러싼 사회 · 문화 환경 변화

1. 변화의 시작

-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에서 연구한 《2018년 한국 미래 전망》은 여섯 개 주제에 걸쳐 향후 10년간의 한국과 세계를 예측하고 있다.
- 이는 곧 똑똑한 국민과 집단 지성의 등장,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 · 고령화 · 다문화 사회의 도래, 신직접 민주주의의 구현, 여권의 신장과 체험하는 소비자 트라이슈머 및 움직이는 소비자 트랜슈머의 탄생 등이다.
- 주요 트렌드에 따른 정책 시사점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 기술과 자원의 개발, 국제 공조와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집단 지성의 성장 등이며, 이는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에도 시사점을 준다.

2. 문화예술 수요 변화와 전망

- 문화예술 수요 변화와 직결되는 문화 소비 행태 변화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도 문화예술 10대 트렌드'에 잘 나타나 있다.
- 새로운 기술의 등장(스마트 컬쳐, 전자책 시대), 다문화 · 다국적 사회의 도래(문화 자원 확보 경쟁, 다국적 신한류, 다문화), 문화예술의 사회적 확대와 창조 사회의 성장(착한 예술, 문화예술 교육, 베이비붐 세대), 문화 정책 거버넌스와 글로컬 사회 문화 확산(지역문화, 문화예술 일자리) 등이다.
- 문화적인 측면에서 2011년에 나타난 특징은, 새로움과 혁신, 세계가 인정한 한국 문화,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정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슈퍼스타의 탄생, 시청자의 직접적 참여, G-20 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 등이다.

3. 문화예술과 사회적 영향력

-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수 싸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2012년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대중문화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한 해였다.
- 이와 같이 예술가와 대중들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소셜테이너'를 위시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했고 이는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으로 평창올림픽 유치, 국제 영화제 수상, 한국 영화 관객 증가, 한류 콘텐츠의 발전으로 국가 브랜드가 제고되고, K-컬쳐로 대변되는 문화 역량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 또한 스마트 혁명으로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면서 문화예술과 타 분야의 융복합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산업의 기반인 기초예술 분야의 육성 · 지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Ⅲ.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 예술로 변하는 사회

1. 삶의 질과 문화예술: '문화 안전망' 구축 시급

■ 문화 (기본)권의 보장: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 모든 국민이 문화 향유의 균등한 기회를 경험한다면 사회의 통합과 발전, 창의적 혁신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 문화 불평등과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보편적 문화 향유, 문화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의해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안전망'과 함께 국민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 안전망'이 중요해지고 있다.

■ 문화 향유권과 문화복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 문화는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Arts for all)'이어야 하며 모두가 누리고 소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통해 모든 방면에 뛰어난 '르네상스형 인간'을 육성해 나가야 하며, 오늘날 프랑스는 이러한 예술 교육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수년째 '소외 계층 문화 나눔' 사업을 통해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복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 사회 통합과 문화예술: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한 도구'

■ 상호 작용과 소통의 도구

•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배려하는 마음과 소통 기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2012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관계 역량'은 조사 36개국 중 35위에 불과하다.
• 2012년 '토요 문화 학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예술 교육 체험이 자기 표현력 향상, 교우 관계 개선, 가족 간 유대감 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러한 결과는 '학교 폭력',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 관계성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대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 인간 행동 변화와 희망의 도구

• 예술의 사회 통합적인 기능과 인간 존엄 회복에 대한 역할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콜롬비아의 '몸의 학교' 등의 사례가 말해 주고 있다.
• 이들 단체는 음악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돌아보고, 무용을 통해 인간 존엄과 배려, 평화를 일깨운 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아프리카의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찍은 사진 속에서 꿈과 희망을 찾게 하는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 역시 예술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해 준다.

■ 공동체 강화: 창의적 공동체 역할

• 예술 참여는 본질적이거나 도구적인 가치로 개인과 커뮤니티에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공동체와 집단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 영국 《DCMS 보고서》(2004)는 문화 향유 기회가 삶의 질과 행복도뿐 아니라 사회 통합이나 긍정적 사고,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 미국 사회학자 Granovetter는 '약한 유대'의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들의 진입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흡수를 촉진하여 창조적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예술과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과 문화예술

•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은 "문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 유네스코는 1970년대 무렵부터 '문화와 발전'의 관계에 주목하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과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문화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 2010년과 2011년 유엔 총회에서는 '문화와 발전' 의제가 연달아 주요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단순한 경제 성장의 차원을 넘어 '발전'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문화의 사회적 · 경제적 기능과 더불어 환경적 기능이 더해져야 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사회 모순,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전택수).

3. 경제와 문화예술: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예술

■ 창의성과 창의 경제

- 현재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식 산업을 선도할 신 성장 동력으로서 창의 경제의 중요성에 관해 자각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 1930년대 '문화예술 뉴딜 프로젝트'의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은 2000년 'Creative America'(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NEA)로 본격적인 창의 경제 체제에 돌입했다.
- EU는 '창의유럽'에서 2011년 유럽 전역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 최대 규모의 문화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2014~2020, 18억 유로, 30만 명의 예술가 지원)을 발표했다.
- 2011년 아비뇽 포럼(주제: "문화에 투자하라")은 미디어 · 문화 산업이 세계 GDP의 7%를 상회하며 13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10년간 관광 사업보다 두배 이상 성장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 창의 산업 영역의 다변화와 융복합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콘텐츠의 영역과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문화예술을 둘러싼 창작 · 유통 · 향유 · 교환 방식이 달라지고, 기반 인프라도 변하고 있다.
- 창의성 기반의 콘텐츠 영역은 전통예술, 문화유산, 축제, 미술 시장, 공연예술, 음식, 서커스, R&D, 지적재산권 그리고 서비스 산업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

■ 여가와 문화예술: 문화 소비 행태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화 향유층과 문화 나눔

- 여가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문화 향유층의 문화 소비 행태도 바뀌어 가고 있다.
- 다양한 여가 활동과 아마추어 예술, 생활 예술에 대한 참여 욕구 증가로 창의적인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개인, 집단, 지역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먹고 살 만한 시절에 새로 찾는 '반찬'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인간 사회의 살만한 가치를 담은 '밥'이다(최준호).

■ 문화예술과 지역 발전: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 국가와 지역 단위의 문화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각국은 자국의 문화

와 도시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는 글로벌 도시가 국가를 대체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나 동시에 글로컬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전략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문화 도시 정책의 성패는 문화예술과 지역 고유 브랜드의 특화 여부에 달려 있다.

■ 도시 재생과 문화예술

- 1980년대 이후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성장 동력'으로 인정되고, 문화예술의 지역 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도시 정책에 문화 전략이 적극 개입되고 있다.
- G. Evans는 문화예술이 도시 재생에 기여한 증거 지표 개발을 위해 《DCMS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물리적 · 경제적 · 사회적 재생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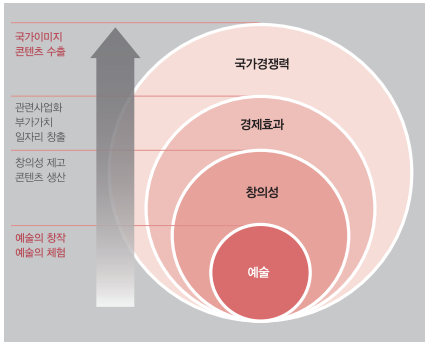
Ⅳ. 예술나무 심기 운동의 전개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예술의 가치 증대와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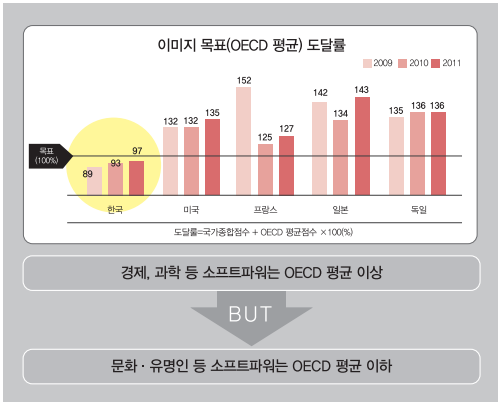
- 2012년 6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7대 중점 추진 과제에는 '예술나무(Arts Tree) 심기 운동을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이 포함되어 있다.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예술을 옹호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예술적 가치를 확산 ·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1〉 예술의 사회 · 경제적 역할 증대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심기 캠페인 추진 계획(2012)〉

〈그림 2〉 2% 부족한 선진국 이미지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심기 캠페인 추진 계획(2012)〉

2. 예술나무 심기 캠페인 개요

■ 예술 기부 공감대 형성 및 기부 활성화 브랜드 캠페인

- '예술나무 심기'는 예술 기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브랜드 캠페인으로, '예술로 즐겁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 '뿌리 내리기'는 예술의 가치 확산 정책을 발표하고 파트너십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고, '나무 키우기'는 개인, 기업, 예술가의 참여에 의한 예술 기부를 확산하는 단계이다.
- 세 번째 단계인 '열매 맺기'는 예술의 사회 · 경제적 가치를 확산하는 기부금 사업을 신설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단계이다.

〈표 1〉 예술나무 심기 캠페인 세부 사업

사업 단계	사업 내용	세부 사업 내용
뿌리 내리기 (기반 조성)	예술가치 확산 정책 발표	• 발표 제목: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예술나무 심기 캠페인'
	예술나무 포럼 운영	• 예술나무 브랜드 선포 • 정기 포럼(예술의 가치와 고급 정보를 나누는 월례 모임) • 캠페인 후원 기금 조성(자선 골프 대회, 예술사랑 대축제) • 예술 옹호 활동(1,000인 선언, 대선 후보 초청 정책 간담회)
	예술나무 브랜드 마케팅	• 예술나무 브랜드(BI) 개발 및 확산 • 예술나무 브랜드 광고물 제작 · 배포 • 예술나무 홍보 대사단 '아트 앰배서더' 운영

사업 단계	사업 내용	세부 사업 내용
나무 키우기 (기부 활성화)	예술나무 크라우드 펀딩	• 공모 선정 프로젝트 모금 • 기획 프로젝트 모금
	재능 나눔 활성화 1기업 1예술나무 가꾸기 (Arts in Business 캠페인)	• 예술인 재능 나눔 버스 운영 • 기업 협력 사업 개발 운영 • '기업과 예술의 만남' 매칭 펀드 사업 확대 • A&B(Arts and Business) 컨설팅센터 운영 • 예술나무 인증 마크제 도입
열매 맺기 (기부금 사업 운영)	예술적인 우리 동네 만들기	• 〈도시 공원 예술로〉 프로젝트 • 〈혁신 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꿈꾸는 예술나무 키우기	• 〈꿈꾸는 예술나무 육성〉 사업 • 신진 예술가상 신설 · 운영

Ⅴ. 나가며

-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크게 본연의 정신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화예술로 인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보편적 문화 향유, 문화를 통한 사회 발전, 창의 경제 구현 등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가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및 공공 문화재정의 확대와 더불어 다각적인 민간 문화 재원의 발굴이 중요하다.

※공공이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는 더 이상 문화예술이 아니라 소비성 '상품'을 이야기할 뿐이다(최준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크게 상업적 가치와 비상업적 가치, 두 가지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중 상업적 가치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정민).

※사회 통합, 지역 재생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상업적 가치에 의해 국가적인 브랜드가 제고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고정민).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전망

Arts Policy,
Status and Prospects

정책 세미나

2012. 10.24. WED

place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전망' 정책 세미나는 문화예술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현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 및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는 1부와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는 2부로 구성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국내 문화예술 전반을 정책 및 제도적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법, 재정,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장으로 구성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행정연구소를 비롯해 숙명여대 · 중앙대 · 숭실대 · 경희대의 문화예술 관련 학계인사들이 전문가로서 의견을 보탰으며, 문화예술 현장의 실무자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1부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방향성

발제1 **문화예술 환경 변화와 법 · 제도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 / **정갑영**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초빙교수

발제2 **변화와 지속: 지방 이전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발제3 **문화재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방안**
/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 과장,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토 론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진행)
박양우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손원익 한국문화경제학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부 문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발제1 **문화예술 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 **정중헌**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발제2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 /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실장

발제3 **문화복지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 / **이지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진행)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안치운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전 문예진흥기금 평가위원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1부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방향성

발제 1

문화예술 환경 변화와 법 · 제도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정갑영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초빙교수

Ⅰ.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1. 장르 간 혼 · 융합의 심화와 경계 모호화

- 매체의 다양화와 실험적 시도를 통해 탈장르 혼 · 융합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예술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혼 · 융합과 새로운 형식의 예술의 탄생에 대비하는 지원과 정책과 더불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부각

- 다문화와 세대를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해, 관용, 인정 등과 같은 가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 사회 통합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예술의 차원을 넘어 폭넓은 문화적 활동과 광의의 문화 개념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

3.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조력 확보

- 다양한 문화예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예술의 창조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전통과 민족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려는 정책적 노력, 그리고 다원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4.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문화예술의 접근에 대한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 문화예술의 지역 간 격차 해소의 목표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5. 동호인 모임 활성화와 예술의 생활화

- 개인주의화와 함께 개인 취향을 중심으로 한 취향 공동체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예술의 생활화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 일부 기초 자치단체는 비전문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시켜 문화예술을 생활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일반적인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6. 정책 · 행정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 ·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문화예술 영역의 전문성과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7. 위기에 직면해 있는 순수(기초)예술

-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바탕은 순수(기초)예술이고, 대중문화가 약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예술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지원 확대라는 국가적 · 사회적 과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창조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강화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표적인 예술 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박양우).

• 문화예술과 대중적 문화콘텐츠 산업 사이의 관계와 문화예술이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인 설득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화폐 가치적 계량화를 통하여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 비화폐적 가치를 화폐적 가치로 계량화하여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연구를 통해 문화재정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양우).

Ⅱ. 창작 · 향수 현황과 정책 수요의 증대

1. 문화예술 창작과 향수 현황

•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작 여건과 향수(享受)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예술 행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창작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과 예술 단체의 창작 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표 1〉 참조), 창작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역시 증가하지 않고 있다.

〈표 1〉 창작 활동 여건 인식

(단위: %, 점)

창작 활동 여건	2003			2006			2009		
	만족	불만	평균	만족	불만	평균	만족	불만	평균
사회적 평가	18.8	43.4	2.66	22.2	38.7	2.75	19.0	37.7	2.73
창작 발표 기회	15.6	61.3	2.37	14.6	57.6	2.44	14.3	57.2	2.42
외부의 창작 활동 규제	56.3	20.1	3.44	45.2	19.3	3.30	46.2	18.5	2.67
문화예술인 / 문화예술 활동 지원	1.7	88.0	1.64	3.4	82.5	1.79	3.4	81.6	1.80
문화예술 활동의 경제적 보상	0.9	87.6	1.58	2.4	85.2	1.67	1.7	85.2	1.65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62.1	16.7	3.67	54.7	20.6	3.46	59.3	15.4	3.60

자료: 각 연도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 지원액이 크게 증가한 문화바우처를 제외하고는, 문화 향수(享受) 역시 증가한 흔적이 별로 없다.

2. 정책 수요 증대와 기금 재원의 고갈

• 문화예술 정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정 규모도 크게 늘어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괄목할만한 증가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특히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후 기존 적립금 인출이 불가피해 져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1973~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성액	1,048,645	88,874	99,394	96,523	97,102	96,672	101,648	101,837	64,932	57,824	88,151
운용액	666,705	49,111	44,236	47,209	95,385	132,754	131,480	120,415	96,889	85,560	143,93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문화예술 정책백서〉

•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는 오늘날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Ⅲ. 문화예술 정책 개선 과제

1. 문화예술 관련 법들의 체계적 정비

• 문화예술 관련 법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 진흥과 국민 문화 향수 증진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을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문화예술을 장르로 규정하기보다 오늘날의 가치를 담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이러한 법들은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과 문화예술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지향하는 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2. 문화예술 재원 확충 방안의 모색

• 축소 · 유지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백억 원씩 출연하여 기금 조성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성이 큰 예술 분야에 대한 기금 조성은 이를 중단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박양우).
• 또한 문화복지세와 같은 조세를 신설하는 방안, 유흥주점업과 향락 사업 관련 업종 등에 일정액의 특별 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 밖에 수익이 발생하는 여러 곳에서 '국민문화복지부담금', '문화환경개선부담금', '문화(복지)환경개선부담금' 같은 명칭하에, 재원 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재원 징수는 수익자 · 원인자 부담이라는 부담금 원리에 의한 상호 연계성도 떨어진다(손원익).

3. 예술 관련 협회 · 단체의 기능 강화 지원

- 예술인들의 모임인 협회, 특히 각 장르별 협회가 충분한 대표성을 갖고 주도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그들이 각종 통계 및 자료 생산은 물론, 정보와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을 교육하며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순수예술 단체가 아닌 넓은 의미의 문화 단체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4. 갈등 중재자로서의 문화예술의 역할 강화

- 다문화적 상황과 세대 간 갈등의 핵심에는 문화적인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관용, 이해, 인정과 같은 가치의 몰각(沒却)이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 문화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업과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특히 청소년 관련 정책은 문화적인 접근이 가장 필요한 분야인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정책 주관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겨야 할 것이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간 상호 참여 제도화

- 지역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일정액을 공동 출자하여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고쳐 일정 부분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며 지역문화재단이 그에 대한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과 방법 등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해야 한다.

6. 전문 영역 구체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 영역이 구현 가능하고, 이때 요구되는 전문성은 무엇이며,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 이미 무대예술 전문 인력, 박물관 · 미술관 큐레이터, 문화예술 교육사 등과 같이 제도화된 경우가 있는 만큼, 전문 영역 발굴과 제도화 작업이 계속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1부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방향성

발제 2

변화와 지속: 지방 이전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Ⅰ. 움직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물리적, 심리적 기억들)

- 이사(移徙)란 장소와 사람간 상호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전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 새로운 지역과의 만남을 통해 예술 개념을 확장해야 하며, 장소에 대한 인지적 상상력을 갖고 이러한 만남을 다중심적이며 혼성적인 문화의 시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Ⅱ. 계획된 것과 계획되지 않은 것

- 경제 불황과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증대의 어려움, 예술계 주 고객인 젊은 층 인구의 감소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창작 · 표현 활동을 결과물 중심으로 지원함으로 인해 예술계에서는 "지원이 없으면 창작도 없다"라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 이사회에 의해 주로 정책이 결정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역문화재단은 임명권자의 의지와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 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 2011년도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을 보면, 경기문화재단이 161개, 서울문화재단이 61개, 인천문화재단이 28개로 편차가 크며, 기금 규모도 무척 다양하다.
- 향후 지역문화재단을 바라보는 담당 공무원의 시각, 그리고 단체장과 이사회, 대표와의 관계의 변화 여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업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국고 보조금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효과의 측면에서 본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

Ⅲ. 영향(Impact)에 대한 기대

- 서구 복지 국가의 문화 정책 모형은 대부분 지역에 바탕을 둔 '민속'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구 복지 국가들은 정체성을 확보하고 차별적인 문화 외교를 펼치고 있다.
- '민속'은 공동체 문화의 확장을 모색하여 시민 정신을 높이는 성향을 가지며,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높여 행복 사회를 추구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영향 연구(Impact Study)는 단기간의 일회적 지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 계획에 근거한 장기적인 수요 예측과 지속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한 도구이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발굴-선발-지원-육성 시스템을 강구하여 지역 교류를 위한 인적 투자와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작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
-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정된 예술계의 재원을 넘어 공공 부문과 비예술계를 접촉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 지역의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고, 공공예술, 도서관, 지역 상공인, 관광과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해야 한다.

Ⅳ. 결국은 리더십

-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새로운 필요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리더십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 새로운 장소에서의 성공 여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얼만큼 대중의 갈망인 예술 창조에 대한 공유와 기쁨을 사업에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문화예술계의 현재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계의 고민을 나누는 응급실과도 같은 상징적 기관이다.
- 예술계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이 중요하며, 리더십은 사람, 장소, 지역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발휘되어야 한다.
- 나아가 그들 간의 네트워킹에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떻게 사회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박영정 토론자의 의견

- 지방 이전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으나, 달라진 조건 속에서 새롭게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첫째, 지방 이전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국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서울 지역도 이를 통해 '지역성'을 온전하게 회복해 나가야 한다.
-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간의 관계 재설정과 역할 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연합회 조직과의 관계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 셋째, '전국성'을 최대한 발양하면서도 나주로 이전하는 문화 기관과 함께 광주, 전남 지역 문화 기관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조속히 지역에 안착해야 할 것이다.

1부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및 방향성

발제 3

문화재정 및 문예진흥기금 확충 방안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 과장

Ⅰ. 문화재정 현황과 전망

1. 문화재정의 추이

- 2004년부터 작성된 중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 관광 분야의 재원 배분 계획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복지 지출 증가, 재정 건전성 회복 등을 위해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예산+기금) 지원의 급격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8.3% 증가했다. 그 비중은 OECD 28개 회원 국(평균 2.74%) 중 14위로 2.56%였다(손원익).

〈표 1〉 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 및 관광 분야 재정 비중 (단위: 조 원, %) * 2013년은 예산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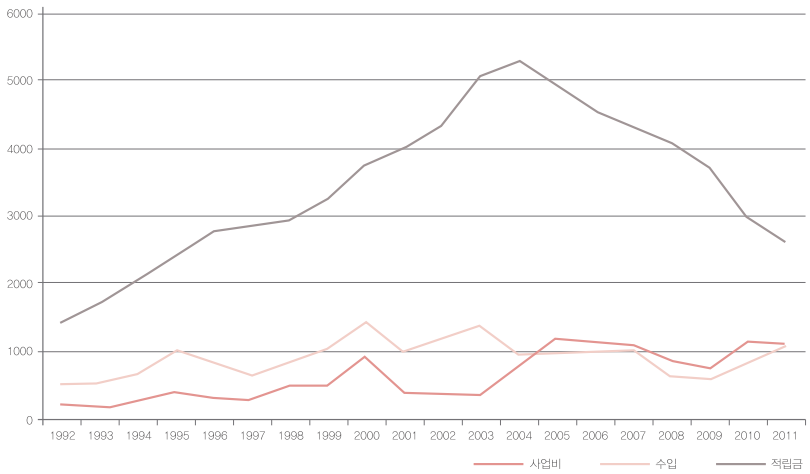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 총지출(A)	196.9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25.4	342.5
문화 관광 분야(B)	2.5	2.7	2.9	2.9	3.3	3.3	3.9	4.2	4.6	4.8
비중(B/A)	1.24	1.30	1.30	1.21	1.24	1.15	1.33	1.36	1.41	1.40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호

2. 문예진흥기금의 추이

- 2013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문예진흥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4,446억 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1,143억 원 규모이다.
- 2004년 모금 수입이 없어지면서 복권기금(2013년 기준 576억 원)이 전입되었으나 사업비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적립금 규모가 감소되었다. 이는 이자 수입의 감소를 야기했다.
- 그러나 향후 저금리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적립금 규모 확대를 통한 이자 수입 증대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문예진흥기금의 재정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재정의 여건 변화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중기 재정 운용,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등 국가 재정 제도가 변화했다.
- 향후에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제도가 변화해 갈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문화 분야 재정 운용에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예컨대, 한정된 예산 제약하에 높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확보 문제,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대한 직 · 간접적 제약 문제, 재정 지원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제시 문제 등이 있다.
- 특히, 기금 정비, 기금 여유 자금의 회계, 기금 간 전출입 허용, 융자 사업의 2차 보전 전환 등 중 · 장기적 국가 재정 제도의 변화는 중요한 재정 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의 모색

1. 기금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문예진흥기금의 중 ·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향후 지속적으로 저금리 추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립금 규모의 확대와 적립금에 기초한 이자 수입을 안정적 재원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 현재 2,600억 원 규모의 적립금을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10년 정도에 걸쳐 소진하는 방안 등 재정 운용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2. 복권기금의 안정적 배분 확대 근거 마련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해 법정 배분을 포함한 수익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 2009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보호기금'이 법정 배분에 포함된 선례가 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수익금 배분 조정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복권 수익금의 성격상 역진적 소득 분배의 문제가 있어, 복권기금 전입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분야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

※기금의 용도를 현재처럼 좁은 의미의 문화복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영국과 같이 창작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박양우).

3. 문화 분야 기금의 통합 운영

- 2013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여섯 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2조 6,402억 원에 달한다.
- 이들 여섯 개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게 되면서 출국 납부금, 카지노 부담금 등의 부담금 수입과 경륜 · 경정 수익금 등의 사업 수익, 이자 수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 여유 자금의 사업비 전환, 기금 운영비 절감 등은 재정적인 장점이 있으나, 개별 기금법의 개정, 관련 조직 개편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장기적 과제로나 검토가 가능하다.

※통합 운영은 기금 목적을 일탈하여 기금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각 기금에서 일정액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양우).

4.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민간 기부 확대

-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 기부를 확대하는 방안과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민간(메세나협의회)과의 역할 분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예술 분야 민간 기부에 대한 조세 혜택 확대 정책은 기업의 사회 공헌, 경제 민주화 등의 논의와 함께 향후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기부금 확대 정책은 메세나협의회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조세 혜택 확대 정책 또한 조세 신설과 마찬가지로 조세 당국의 저항이 만만히 않을 것이다(박양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 기부는 연간 7조 원 정도로 80%가 종교 단체로 들어가는데, 이중 일부를 문화예술 분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손원익).

5. 문화재정에 관한 연구 강화

- 문화 분야의 재정 정보와 기초 통계의 생산, 재정적 측면에 연구를 축적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문화재정의 확대를 주장해 나가야 한다.

2부 문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발제 1

문화예술 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정중헌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Ⅰ. 문예 진흥 정책의 현황

• 오늘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조라는 이념과 기조가 분명했던 초창기와 달리, 이념과 기조가 퇴색된 채 지원 체계만 복잡져 정책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념과 기조가 퇴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도 '민족 · 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이라는 기능을 통해 유지 · 구현되고 있다고 본다(오양열).

• 40년 가까운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부합할 만큼 수준 높은 예술가 및 예술 단체를 키워내지 못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과 역할 분담을 통해 적어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는 세계적인 예술인 및 예술 단체를 키워내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오양열).

※신진 예술가 지원의 경우 지원 후 역량 강화 실적을 심층 심사하여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

인 예술가를 분야별로 한 명씩 선정하여 10년간 지속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오양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회 변화에 그때그때 적응하는 노하우는 강하지만 문화예술계에 누적된 피로감이나 예술인들의 불만족을 해소할 돌파구를 여는 개혁 의지는 약하다고 본다.

Ⅱ. 예술가 지원 정책 개선 방향

1. 예술인 지향의 지원 행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 지원 기구로서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예술인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고 절차가 복잡하며, 사후 정산이 까다로운 기관으로 비치고 있다.
- 대다수 예술인들이 지원금으로 생계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다. 창작 활동에 필수적인 제작비가 충분치 못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1천만 원 이하는 증빙 서류를 면제한 적도 있으나, 지원금은 생계비 지원이 아니므로 유용을 막기 위한 정산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것은 어쩔 수 없다(오양열).

- 지원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주목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지원 제도의 모순과 운영 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2.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지원 제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보면, 메뉴가 다양해지고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졌으며 그 대상이 전 방위로 펼쳐져 있다.
- 이는 소외 계층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지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어느 하나에도 충실하기 힘들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3. 「예술인 복지법」 제정으로 지원 정책 개혁돼야

- 2011년과 2012년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 · 시행되고 복지재단이 출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도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 창작 지원기금의 지역 이관으로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예술가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후 지원, 지역문화재단은 사전 지원으로 차별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이뤄질 때, 진정성의 저해나 가치 함몰에서 벗어나 비로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이 지원되는 공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백령).

• 지원 분야가 전통적인 예술 장르에서 한걸음 나아가 새로운 예술 장르와 문화 산업 분야(다원 예술과 융복합 장르 등)로 확대되는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현장 예술인에게 실익이 되는 제도

• 소외 지역, 산간 · 도서 지역문화 순회의 경우 대중 친화적, 인기인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순수예술인들은 참여 기회가 적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요자 맞춤형 눈높이 프로그램을 강조하다보니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고 있으나, '수요자 맞춤형 순수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오양열).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 사용됐던 클래식 음악을 들려 준 후, 퀴즈식으로 진행하면서 종국에는 오케스트라나 실내악단이 악장 전체를 들려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오양열).

• 문화바우처 제도 역시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 쪽에 치우쳐 공연예술인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중 취향 경쟁력에서 공연예술이 도서나 영화에 뒤지고, 문화바우처 한도액이 한 가족이 공연 작품을 함께 감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오양열).

• 복권기금을 소외 계층 예술 향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리 소홀과 시행착오로 예술인 지원과 창작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Ⅲ. 예술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 결론적으로 예술인 지원 정책은 현장 예술인들의 피부에 와 닿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 첫째,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엘리트 예술가 · 단체 육성, 보편적인 예술가 지원, 문화 소외 계층 지원 중 하나로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예술가 · 단체 집중 지원과 보편적인 예술가 · 단체 중점 지원 문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오양열).

※복권기금 전입금은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외에는 쓸 수 없는 제도적인 장벽이 있어, '문화 소외 계층 지원' 목표는 삭제가 어렵다고 본다(오양열).

• 둘째, 예술인복지재단은 생계 지원과 고용 창출을 책임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셋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을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회계 법인에 정산을 위탁하는 등 지원금에 대한 사후 정산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 넷째, 지역 예술인들이 전국단위 직접 공모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쿼터제'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전국 단위 공모 사업에 지역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예술적 수월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현행 선택과 집중 방식 지원 제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오양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예술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역 예술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오양열).

• 다섯째, 지원 기간 2년에 집행 항목도 비교적 자유로운 영 아트 프런티어 지원 프로그램을 중견 예술가에게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에 적극 찬동하며, 문화 나눔 사업이 소외 계층에게도 유익하고 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비하자는 주장에도 적극 찬동한다(오양열).

• 여섯째,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상주 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 단체와 지역 기반 예술단체의 협력과 상생을 유도해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 일곱째,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전반을 진단하여 누수 현상을 막고, 소외 계층에게도 유익하고 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여덟째, 지방 자치단체가 문화 시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하는 예산 집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그 예산을 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에 배분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중 · 장기적으로 현장에 정착하며 지역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사업의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다(백령).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조 조정과 인적 쇄신으로, 40년 가까이 쌓인 피로감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개혁이 필요하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변화하는 시대 추세와 예술계의 다양화, 세계화, 전문화에 맞게 거듭나야 하며, 목표와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여 약화되어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당면 과제인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평가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가'이고, 어떤 작품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작품'인지, 누가 이를 비평적 담론으로서 승인하고, 제도적 담론으로서 공인하며, 문화적 담론으로서 용인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안치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성 높은 작품 및 예술가에 대한 다년간의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예술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부 문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발제 2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실장

Ⅰ. 예술 정책 개념의 전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예술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개념과 기조의 정립, 실천적인 정책의 수립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도 예술 본연의 가치에 대한 전향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실행 계획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공공미술 사업 운영 기금 10억 원 포함)를 5대 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94억 200만 원의 기금을 투입한다(오양열).

- 지방 이전 등 예술위의 몇 가지 변화를 둘러싼 논의도 중심과 주변 간 경계 재설정을 통한 거국적 시각의 균형 발전, 균형 있는 생태계 유지가 핵심적인 사안이다.
- 사후 지원 및 평가를 통한 환류 기회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비평적 리포트를 활용한 정성적 평가 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
-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한 아카이빙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환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비평 기능을 확장하여 예술 생산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 레지던시와 대안공간과 같은 공간을 통한 간접 지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모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직접 지원의 비과학성, 자의성을 보완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직접 지원을 줄이고 교육이나 아카이빙, 국제 프로모션,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방식의 간접 지원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 지원 기능은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예술자료원, 예술경영지원센터도 수행하고 있어, 자칫 기능 중복 지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오양열).

- 예술 진흥은 창작자와 향유자 사이의 매개 역할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그 명암이 갈릴 수 있으므로, 예술 지원 정책은 매개 활동의 활성화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Ⅱ. 예술의 가치에 주목하는 예술 정책

-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징 가치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공간인 예술의 장(場)이 작동하는 방식 및 예술가와 향유자 간 교환 방식을 재검토하고 재구조화해야 한다.
- 포스트모더니티로의 전환 이후에도 예술 가치의 상품 가치화, 근대의 영역 분할 개념을 고수하려는 학제, 장르 구분 등 예술 개념과 제도를 혼돈하는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 현 상황을 진단 · 극복하기 위한 이슈로 문화 민주주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항하는 지역성, 예술 생산 방식 · 소통 경로의 변화, 공공미술, 예술의 자율성 등이 거론된다.
- 탈장르 실험예술, 장르 혼합 또는 복합 장르 실험, 예술과 생활을 매개하는 사이예술, 뉴미디어아트, 공공성을 진작하는 예술 등이 오늘날의 예술계 흐름이다.
- 경제적 활동 범위에 포섭되어 있는 한 예술 노동의 소외는 필연적이며, 예술가의 생존과 활동을 위한 정책은 예술 노동의 경제적 교환 방식을 변모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예술의 자율성을 토대로 이룩한 20세기 예술의 진보는 예술의 상품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향후 예술작품의 사적 소유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예술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 화폐 권력과 직결되는 상징 자본의 독점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장 탄탄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 하나가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다.
- 앞으로의 예술 정책은 지역 공동체 속에서 예술적 자율성을 잃지 않고 삶의 공간 속으로 파고드는, 창작과 향유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공공예술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교육 시장의 과다한 예비 예술인 육성 문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예비 예술가 육성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 비영리 예술 활동을 보장하는 전시장 · 극장의 확산, 지역별 문화 공간 배치 및 기능 활성화, 제도적인 예술 교류의 장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 공동체가 예술인들을

끌어안는 구조 마련 등이 초보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한걸음 나아가자면, 예술가에 대한 조사, 연구, 비평, 기획 기능을 활성화하고 미술 제도의 폐쇄성을 없애나가며 예술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정보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언론 방송의 문화 관련 보도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창작 매개 활동이 성행해야 한다.
- 보다 큰 차원에서는 예술인을 주요한 생산 동력의 하나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전제로, 예술인들의 사회 공헌을 담보하는 일자리 창출, 예술 생산을 향유와 소통으로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 육성, '예술 창작 공공 서비스'를 위한 역할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
- 공공미술 제도를 개선하여 소수 명망가 · 전문업자 위주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기존 시장 질서에서 벗어나 시장 합리성을 도모하고 예술가들의 활동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예술의 공공성 논의는 예술가를 창의적 문화 생산에 종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재규정 하고, 예술 노동의 사회적 교환 방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Ⅲ. 창작 공간과 대안공간

- 오늘날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작품들은 예술 시장에서 요청하는 바, 또는 기성의 예술 트렌드에 충실한 작품을 내놓기 때문에 양계장 무정란에 비유되곤 한다.
- 이 공간들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그 만남이 예술가들끼리, 소수의 제도권 엘리트들끼리의 만남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다.
- 그럼에도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새로운 미술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몇몇 공간들은 참신한 실험으로 국제 문화 교류 및 커뮤니티 아트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대안공간들은 10년의 실험을 통해 한국 시각예술계의 근간을 이루는 풀뿌리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서울의 대표적인 대안공간들은 지난 10년 동안 젊은 작가들을 제도권으로 올려놓는 매개 역할을 충분히 해냈고, 미술 생태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심적인 공간이 되었다.
- 때로는 열악하다거나 상투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후발 대안공간들도 지역 도시의 대안공간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 이 밖에도 아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충분히 자질을 지닌 많은 공간들이 기성 미술 제도가 허락하는 단선적인 활동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다.

Ⅳ. 예술 매개자 육성

- 도시별 예술 영역의 전문 인력 생산 시스템은 수요를 초과할 정도이나, 매개 전문 인력 생산 시스템은 태부족하다. 대학, 대학원의 매개자 교육 시스템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 더구나 매개자들을 수용할 만한 기관이 많지 않고, 정실(情實) 임용으로 전문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하는 합리성이 떨어진다.
- 각 지역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대안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가, 예술 매개자들이 전국적, 혹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고 활동하는 긍정적인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공간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좋은 프로그래머 · 큐레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역 간 연대를 통하면 이러한 전문 인력의 부재 · 결핍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예술 영역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 지역성과 전문성의 동행은 지역적 사유와 실천에서 나오며,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삶과 예술을 살리는 길이다.

2부 문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발제 3

문화복지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

이지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문화복지의 필요성과 의의

- 문화 소외 계층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발전하여 경제적 · 지리적 · 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공급하고 지원할 경우 소득 재분배와 문화 정체성 형성 및 사회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오늘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한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 향상은 국가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문화복지가 새로운 시민권의 하나인 '문화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Ⅱ. 문화여가 지원 사업의 평가

1. 평가 개요

- 정부는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여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네 개 부처가 27개의 직접 사업과 14개의 간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문화복지는 정부의 친서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그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 문화여가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27개 직접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 평가 작업은 매개 인력, 이용자, 비이용자의 설문 조사와 매개 인력 FGI로 구성되었으며, 본 토론회에서는 FGI의 결과를 중심으로 발제하기로 한다.

2. 조사 방법: FGI(Focus Group Interview)

- 관련 이해 당사자, 현장 전문가 대상의 심층 인터뷰(FGI)를 지역별(대도시, 중 · 소도시, 농어촌), 권역별(수도권, 강원 · 중부권, 영남권, 호남 · 제주권)로 총 13회 실시하였다.
- 주요 내용은 지원 사업 현황, 사업 간 대상별 유사 · 중복 성격, 사업의 파급 효과 및 필요 정도, 사업의 개선 방안 및 보완점을 파악하는 것 등이다.

3. 현 제도의 효과성

- **관심과 능력의 개발**: 문화여가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었던 이용자들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문화예술 향유 능력 및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었다.
- **인지 및 학습 능력 향상**: 문화여가 활동이 이용자의 이해력과 묘사 능력과 같은 인지 능력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자존감 향상**: 고급 공연의 향유, 고급 악기의 연주,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을 무대에 올리는 경험 등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 **정서적 · 사회적 능력 향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정서에 문제를 보인 아이들이 꿈을 찾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 **대인 관계 능력 향상**: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해 내는 모습을 가족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행복감 증진**: 문화여가 지원 사업은 문화적 소외를 겪어온 취약 계층의 삶에 활력을 주고, 이를 통해 이들의 행복감 증진에 기여하였다.
- **나눔 능력 향상**: 향수자들 자신이 잠재된 능력을 계발시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뿐 아니라, 매개 인력인 예술가들의 나눔에 대한 인식과 나눔 능력이 향상되었다.
-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에 기여**: 취약 계층이 문화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은 대중으로 하여금 취약 계층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그들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

4. 현 제도의 문제점

-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지역 주관처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소외계층, 특히 재가 대상자를 문화 공연장으로 처음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 낙인감으로 인한 회피: 발굴이나 이용 과정에서 어떤 대상자들은 낙인감을 느껴 서비스 신청을 주저하거나,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 지원금 수준의 한계: 저소득 가구당 1매(5만 원, 청소년 대상 개별 카드 별도)가 발급되지만, 가족이 함께 영화와 전시 외 고급문화를 향유하기에는 부족하다.
- 지원금 범위의 한계: 식사나 간식 등의 부가적인 비용 지원과 함께,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차량과 동반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무료 이용의 문제: 무료 혜택의 학습 효과로 인해 문화적 욕구가 생길지라도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 카드 지급의 문제: 문화 · 체육 · 여행 등 바우처별로 카드가 지급되어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관 및 소지에 따른 불편과 분실의 위험이 크다.
- 개별, 세대별 지급에 따른 문제: 문화바우처 카드가 개인 또는 세대별로 지급되어 문화바우처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공연 수준: 영세 소규모 기획사들에 의한 공연물의 경우, 더러 공연 수준이 떨어져 취약 계층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이후의 공연 관람 의욕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다.
- 이용 시간의 문제: 많은 공연이 종사자의 근무 시간이 아닌 저녁이나 밤 시간, 주말에 제공되어 시설 장애인이나 어린이, 일부 노인들은 관람 자체가 어렵다.
- 문화예술계와 복지계: 문화예술 분야 사람들은 사회복지와 취약 계층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이들에게 맞는 활동을 기획 ·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방 자치단체의 소극성: 문화복지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 사업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보 제공에 서투르고 고유 사업으로 여기지 않아 열의가 부족하다.
- 관리 · 감독의 문제: 이용하는 시설 측은 지나친 관리 · 감독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체계적이고 세밀하지 못한 관리 ·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 중복성의 문제: 문화바우처를 넘어서는 큰 틀에서 중복이 발생하나, 자주 체험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 홍보의 문제: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매개 인력 역할의 불명료성: 문화바우처 업무는 예술가 측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수도 있어, 문화복지사의 역할이 단순 행정 업무로 축소될 수도 있다.

- 처우의 문제: 매개 인력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 채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게 책정된 강사료는 교통비도 안 될 때가 있다.
- 중소도시의 문제: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중 · 소도시의 경우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농어촌의 문제: 농어촌은 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아 문화바우처 사용처가 부족하고, 인터넷을 통한 이용 방법이 농어촌 사람들에게는 어렵다.
- 효과성의 편차: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의 문화 욕구 촉발 효과를 내고 있으나, 그 활용도나 학습 효과는 지역 간 · 개인 간 편차가 크다.
- 기획 바우처의 문제: 단체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모든 대상자들을 골고루 만족시키기 어렵다.
- 체험형의 문제: 체험형은 전시 · 관람형에 비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 전시 · 관람형의 문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도시로 이동할 때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Ⅲ.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개선 방안

1. 문화계와 복지계의 협력 체계 구축

- 문화여가 지원 사업 대상자는 대부분 사회복지 대상자이기 때문에, 양 분야 기관 · 단체 · 시설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 참여도 및 인식 향상에 중요하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원의 MOU가 체결되고, 이러한 협력 체계가 각 분야의 본부 및 해당 지역의 시 · 도 단위로 확대되어야 한다.

※얼마나 양 기관 및 관련 단체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간에는 이미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안다(오양열).

- 사회복지사들에게 문화예술을 교육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 등에 배치하면 문화계와 복지계를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업무보고에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을 밝힌 바 있고 시범 사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2년 1월 말부터 3월까지 부산과 전북에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160여 명)을 시행했다. 그러나 문화복지사 제도가 도입되고 상당수의 문화복지사가 양성되기까지는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오양열).

※일반 국민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서비스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

력 중 제도적으로 인정된 인력을 '문화복지사'로 칭하고 있으나, 정부 공인 자격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몇몇 민간 단체가 '문화복지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오양열).

- 사회복지계에서는 지역사회 내 문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연계가 부족하므로, 문화 소외 계층이 문화 기반 시설에 친숙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업과 전략적 관계 구축

- 정부와 기업 간 MOU 체결로 현재 '사랑티켓' 사업을 특정 기업 주도하에 운영하여 '사랑티켓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 경우 문화바우처와의 중복성도 해소되고, 기업이 문화바우처에 부가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해 나갈 수도 있다.

※'사랑티켓'은 '문화사랑카드'라고 하여 과거에는 한일은행(현 우리은행)과 제휴하여 혜택을 주었고 현재는 국민은행(KB)과 제휴하고 있으나,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본격적인 브랜드화를 통해 기업의 홍보 마케팅과 고객 혜택의 획기적인 증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오양열).

- 영화관을 운영하는 특정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문화바우처로 영화를 보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폭넓고 다양한 할인 혜택이나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이러한 파트너십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시킬 수도 있으나, 이용자 대다수는 지리적인 여건보다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영화관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문화예술 장르별 지원 사업 진단

전문가 워크숍

2012. 10.09. TUE 10.10. WED
10.11. THU 10.12. FRI

place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르별 지원 제도 및 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장르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좌담 형식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문학, 연극, 전통예술, 무용, 음악, 시각예술 총 6개 분야의 워크숍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위원들 중 장르별로 특화된 전문위원이 진행을 맡았고 3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워크숍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제도의 효과 및 실효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0월 9일(화) 문학

김주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소설가 | **박상우** 소설가
오생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홍정선** 인하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10월 10일(수) 연극

박계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 **김병호** 전 아시테지코리아 이사장
박장렬 서울연극협회 회장 | **정현욱**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10월 10일(수) 전통예술

송혜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숙명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전지영 음악평론가 | **한만주** 전통나눔 사무국장 | **허윤정** 북촌창우극장 대표

10월 11일(목) 무용

제임스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김서령 이오공감 대표 | **문애령** 무용평론가 | **박호빈** 댄스씨어터 까두 대표

10월 12일(금) 음악

왕치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문위원
박상연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대표 | **박준영** 경희대학교 교수, 지음 대표 | **최덕식** 광주대학교 교수

10월 12일(금) 시각예술

이충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노암 아트스페이스 휴 관장 | **박성태** 서울문화포럼 총괄이사 | **윤진섭** 호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문학

문학 장르 지원 사업 진단

1. 행사 개요

- 주제: 문학 장르 지원 사업 진단
- 일시: 2012년 10월 9일(화) 15:00~17:00
- 장소: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 참석자
  - 좌장: 김주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소설가)
  - 토론자: 박상우(소설가), 오생근(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홍정선(인하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 배석자: 박두현(예술진흥본부 본부장), 이성겸(예술지원부 부장) 외

2. 지원 신청 안내상의 문제

- 우선 해외 파견 지원, 레지던스 지원 같은 항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신청 자격에 문학 비평가가 없어 신청서만 보고서는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다(홍정선).

3. 지원 건수 및 금액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잡지의 숫자가 꽤 많았던 것(37건)으로 기억하는데, 지원하는 잡지의 수를 줄이고 지원금을 올려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홍정선).
- 문학 조사 연구 지원의 경우 목적이 불투명하다. 지원 자격을 단체로 둘 경우 300~1,000만 원은 너무 적으므로 개인으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한다(홍정선).
- 국제 문화예술 교류 지원의 문학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다고 생각한다, 특히 단체가 참가한다고 할 때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홍정선).

4. 지원 심의 제도 개선

- 문단 생활을 한 지 20년 정도 된 사람의 작품을 경력이 10년도 안 되는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심사위원들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김주영).
- 집필 계획만 잘 쓰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을 써야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 이 제도가 신뢰를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박상우).
- 요즘 출판 시장은 신춘문예 등단 작가 등 능력 있는 신진 작가들에게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공공 기관에서 이중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박상우).
- 해외 파견 제도의 경우 신청자들이 인터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저작물에 대한 질적 평가와 목적성은 서류 전형을 통해 걸러내는 것이 좋겠다(박상우).
- 국제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 과정에서 개인 친분에 의해 결성된 단체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많이 발견했다. 단체 지원의 공적 성격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박상우).

5. 지원 사업 집행 과정 개선

- 창작 지원을 받은 작품이 반드시 책으로 나와야 한다면, 출판사가 주체가 되어서 간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리 ·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홍정선).
- 출판사를 섭외해서 수상작들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리즈로 계속 발단한다면 창작 지원과 작품 생산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자비 출판을 위해 상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박상우).
- 문제는 작가들이 출판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출판사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경우 출판사당 작가 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우).

- 창작 집필 공간 사업의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운영 · 관리 방법에 대해 들어 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 사후 관리가 없어 엉터리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상우).

6. 현행 지원 사업의 효과

- 작가 해외 파견 사업의 경우 평가할 만한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작가들이 없는 것 같다. 차라리 '한중작가회의'처럼 세미나 형식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김주영).
- 작가 해외 파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낯선 곳에서의 체험 자체가 창작에 보탬이 된다고 본다(박상우).
- 지원 대상에 대한 사전 서류 심사와 창작물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오생근).

7. 신규 사업에 관한 의견

- 예술가들이 40~50대가 되면 정체성 문제 등 예술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의 활동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박상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신규 사업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 사업을 고도화하거나 세분화된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오생근).

연극

연극 장르 지원 사업 진단

1. 행사 개요

- 주제: 연극 장르 지원 사업 진단
- 일시: 2012년 10월 10일(수) 10:30~12:30
- 장소: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 참석자
  - 좌장: 박계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 토론자: 김병호(전 아시테지코리아 이사장), 박장렬(서울연극협회 회장), 정현욱(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 배석자: 이정만(예술지원부 차장)

2. 공연 지원 제도 전반의 문제

- 예술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 정책의 연속성이다. 1~2년마다 바뀌는 정책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정현욱).

- 행정 편의상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은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가나 예술 단체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박계배, 정현욱).

※연극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官) 위주의 제작 관행이다. 소규모 극단들은 대책 없이 인력을 빼앗겨 진정한 팀워크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박장렬 토론문).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서울 지역의 연극 중심 민간 페스티벌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확대하고 지원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며, 수상작과 수상자에게 재공연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박장렬 토론문).

- 재원은 같은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와 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의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해 책임 있는 관리가 안 되고, 지원 효과도 못 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해야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김병호).

3. 지원 신청 안내상의 문제

- 재공연 지원의 경우, 지원 요강의 개념이 모호해 지원하는 기관이나 지원 신청을 받는 기관이나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정현욱).

4. 지원 심의 제도 개선

- 아동과 청소년들도 자극적이고 도식적인 문화, 경쟁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을 별도 지원 분야로 만들 수 없다면 연극 장르에 전문 심사위원이라도 둬야 한다(정현욱).
- 지원 대상이 되는 공연의 관객층까지 고려하여 공연을 올릴 만한 시설을 갖고 있는 극장을 선별 · 지원해야 한다. 원한다고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된다(정현욱).

5. 공연예술창작기금 지원 사업 개선

- 우선 희곡만 공모하고, 선정된 희곡에 대해 공연 단체의 제작 계획을 공모한 뒤 실제 제작비를 지원하는 2단계의 창작 기금 지원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병호).
- 제작 · 공연 후에는 사후 심사를 통해 차기 연도 20개 지역 전국 순회와 국제 교류를 보장하여, 한 작품에 캐스팅되면 3~4년 스케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김병호).
- 창작 초연 지원의 경우, 창작과 무대화가 쉬운 것이 아닌데 너무 창작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다. 하나의 공연이 큰 작품이 되어 생명력을 가지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정현욱).

- 창작지원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극단의 돈으로 초연을 했을 경우에도 재공연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박장렬).
- 소극장도 공연의 수월성 여부에 따라서 대극장 공연과 같이 지원 가능 범위를 최고 1억 원까지 개방했으면 좋겠다(박계배).

6. 공연예술 창작지원 기금과 발표 공간 지원 사업의 개선

- 공연예술 창작지원 기금과 창작 발표 공간 지원은 사후 지원액이 적고, 기간(2년)도 짧다. 후속 도약 단계 프로젝트가 있어야 기본 성과와 목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박장렬).

※민간 극장주가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다. 극단이 협업하는 경우에도 2년 정도의 지원으로는 미래를 개선하기에 미흡하다(박장렬 토론문).

- 창작지원 기금 사업 제도를 개선할 때,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주거나, 홍보 · 마케팅을 대행해 주고, 외국에 보내주는 주는 등의 방법도 검토했으면 한다(박계배).
-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공연장을 임대해서 몇 개 극단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극단들이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박계배).

7. 차세대 예술 인력 집중 육성 사업 개선

- 차세대 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활성화 · 제도화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일회적 성격을 벗어나야 한다. 단계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박장렬).
- 연극 장르는 여덟 명을 선발한 후 다시 세 명을 뽑는데 다시 경쟁제로 가야한다. 1등은 언론스타로 만들어 나중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박장렬).
- 차세대들이 많은 수혜를 받다 보니 스스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집중 지원하여 멘토-멘티 관계를 만들어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현욱, 박계배).
- 연극인들이 해외로 자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젊은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연수를 받게 하고, 의지할 곳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박계배).

8. 공연장 상주 단체 집중 육성 지원 사업 개선

- 상주 단체 지원은 좋은 제도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이 있다. 지원 대상을 예술 단

체에서 공연장으로 바꿨는데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형태가 좋겠다(김병호).

- 상주 단체는 원하는 공연을 위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지역의 대극장 사정에 맞춰 공연해야 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정현욱).
- 상주 제도가 한시적인 공연예술 단체 집중 육성 지원 제도와 결합하면 단체 계획에 따라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 상주 단체는 1년제라 불안해 하고 있다(정현욱).

9. 공연예술 단체 집중 육성 지원 사업 지속 시행

- 창작지원기금 사업을 한시 사업인 공연예술 단체 집중 육성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서 단체 운영 쪽으로 기금을 쓰게 하는 것이 명망 있는 단체를 배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다(박계배).
- 자연 도태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단체 집중 육성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공연계에 야수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박장렬).

10. 국제 문화예술 교류 지원 신규 사업

- 훌륭한 시설 공간인 예술인력개발원을 국제 교류 센터로 만들어 아티스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예술가들이 레지던스 시설에 묵으면서 세미나나 포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박장렬, 김병호).
- 각국 한국문화원을 관리 · 운영하는 해외문화홍보원이 독립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거점 형태의 전문 상주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려다 취소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정현욱).

전통예술

전통예술 장르 지원 사업 진단

1. 행사 개요

- 주제: 전통예술 장르 지원 사업 진단
- 일시: 2012년 10월 10일(수) 10:30~12:30
- 장소: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 참석자
  - 좌장: 송혜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 토론자: 전지영(음악평론가), 한만주(ARKO 책임심의위원, 전통나눔 사무국장), 허윤정(북촌창우극장 대표)
  - 배석자: 박두현(예술진흥본부 본부장), 이효림(예술지원부), 임기현(국제교류부)

2. 지원 제도의 방향성

- 단체들이 수동적 · 형식적으로 범주에 맞춰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창의적인 공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 내용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허윤정).
- '선택과 집중'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과감히 지속 · 추진하여 장기적인 시각

에서 완성도 있는 공연,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공연에 주목해야 한다(허윤정).

- 제2 · 제3의 공명, 정가악회가 나오도록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성을 잡아야지 현상에만 쭈목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발견이 아닌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한만주).
- 창작 위주의 지원을 벗어나 전통과 창작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접하기 쉽지 않은 판소리, 정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허윤정).
- 젊은 친구들이 창작 쪽으로만 나가려는 것은 기성세대와 자라 온 배경도, 유전자도 다르기 때문이다. 의미, 철학, 내면, 추상성 등의 개념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한만주).
- 개인 지원이 안 되니 자꾸만 단체를 꾸려 활동하게 된다. 단체와 개인의 지원 비율을 정하면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 문제, 단체 중심 지원 문제는 해결된다(송혜진, 한만주, 허윤정).
- 전통을 풍부하게 습득한 사람은 창작을 해도 진정성이 있다.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에게 지원을 하기 보다 개인 예술가를 키우는 쪽으로 돈을 써야 한다(송혜진).
- 회계상 투명성 때문인지 지역문화재단은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때 단체증을 요구한다. 그래서 단체를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 것이다(한만주).
- SNS를 통해서 세계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동영상이나 음반 같은 미디어 콘텐츠 개발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허윤정).
- 금액 지원, 제작 지원도 좋지만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가령 행정 컨설팅 같은 제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한만주).
- 전통음악의 국제 교류는 중 ·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극소수에게만 접근이 가능하다. 게다가 해외 공연을 추진하는 데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허윤정).

3. 지원 심의 제도 개선

- 전통적 역량을 가진 자가 창작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주목해서 심사한다면 전통 우선이냐 창작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송혜진).
- 공연이나 연주예술가들이 발전하듯 심사 제도도 진화 · 발전해야 한다. 현장 주체들에 의한 상시 심사가 바탕이 된다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이다(허윤정).
- 심사의 방향, 방법, 결과는 완성도 있는 공연 작품을 생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심사 방법을 다양화하고, 심화된 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등 심사에 대한 창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허윤정).

• 모든 신청자에 대해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병행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해 글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사람들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한만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한 명의 심사위원이 그룹을 나누어 심사하는 것은 어떨까. 일반적 서류 작업에는 미비하지만 좋은 공연물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한만주 토론문).

• 전문 역량을 지닌 심사위원들이 서류 심사, 인터뷰, 음원을 들어 보는 적극적인 심사 등을 통해 멘토링과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cowork' 수준까지 가야 한다(허윤정).

• 프로 또는 준프로들을 대상으로 심사하는데 현장에서 이름을 거의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한만주).

※예술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 외에 사업을 잘 실행하도록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한만주 토론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담당자와 심사위원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지속성, 네트워킹, 정보가 중요한데 이전의 정보, 히스토리, 성과 들을 보존 ·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허윤정).

• 신청 단체는 삭감 지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부풀려 공연 계획을 짜고, 심의자는 그런 행태를 알고 예산을 삭감하는, 소모적인 일이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허윤정).

4. 현장과의 소통과 사후 평가의 공유

• 국립, 시 · 도립 단체 외에 전통음악계의 흐름을 잇는 주요 공연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허윤정).

• 지원 받은 공연이 끝난 후에는 사후 평가 결과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단체가 공유하여 공연 내용이나 지원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허윤정).

5. 전지영(음악평론가) 토론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자생력'이라는 미명하에 상업적인 국악 단체, 국악뮤지컬, 기획사 등을 지원해 왔다. 이는 전통예술의 상품화와 상업적 모델에 대한 지향을 불러 왔다.

※전통예술의 진흥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예술 정책은 없고 경제 정책만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이 전통보다는 창작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작은 전통과

가능한 한 거리가 멀어야 참신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예술가들은 창작을 빙자한 비(非)전통에 집중한다.

※대부분의 민간 연주 단체들이 공적 기금에 의존해서 연명하고 있다. 예술적 성장도 보이지 않고, 예술의 사회성이나 기금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없이 밀어내기식의 공연을 하고 있다.

※간섭을 통해 공적 기금에 대한 강한 책임 의식을 인지시키고 심의 · 평가 · 사후 지원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원하되 간섭 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폐기돼야 한다.

※지원이 언론이나 비평계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는 단체(예술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지원이 되려면 20대와 석 · 박사 생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지원'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한다면 기금만 축내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어질 것이고, 애정과 열정 있는 청년 세대, 석 · 박사 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관현악단은 지원해줘야 한다", "이만한 단체 없다", "열심히 한다", "아이디어가 좋다", "국악과 출신이니까" 등 일종의 관습화된 지원의 당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술적 고뇌의 깊이와 상관없이 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자들이 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찾아야 한다.

※심의를 한 사람이 현장 평가를 하여 사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모든 지원금 심의와 현장 평가를 단 몇 사람이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아무리 회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한다고 해도 제한된 심의 인원으로 인해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이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원인이다.

무용

무용 장르 지원 사업 진단

1. 행사 개요

- 주제: 무용 장르 지원 사업 진단
-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4:00~16:00
- 장소: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 참석자
  - 좌장: 제임스 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 토론자: 김서령(이오공감 대표), 문애령(무용평론가), 박호빈(댄스씨어터 까두 대표)
  - 배석자: 박두현(예술진흥본부 본부장), 이성겸(예술지원부 부장), 송미선(예술지원부)

2. 무용 장르 인프라의 문제

- 인프라가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공 지원 기관과 공연장, 단체들이 협력해서 무용 시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 좋은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김서령).
- 무용 교육이 없어 관객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쉽고 재미있는 것부터 점차 발전시켜 나가며 관객층을 넓혀야 한다. 유통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김서령).

- 의지가 있는 지방의 교육자들이 전문 단체를 초청해 티칭과 작품 설명 등을 의뢰하고 있다. 전문 단체들은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김서령).
- 노출 빈도가 문제다. 한문연에서조차 성인 무용이 팔리지 않는다. 유통 인프라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무용을 향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박호빈).
- 제작 규모가 커져도 모든 것을 시스템 없이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다.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쓸 데 없는 곳에 썼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박호빈).

※공연 제작 인프라와 유통 시장 인프라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극장 제작 방식의 프로그래밍 제도가 예술가들에게 최상의 지원일 수 있다(박호빈 토론문).

- 지원은 늘었는데 안무가가 계속 부족한 것은 시스템에 허구가 있거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 · 공급이 일어나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박호빈).

※지속적인 지원에도 개선이 없는 것이 예술가들의 역량 부족 때문인지, 지원 시스템의 허구성 때문인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박호빈 토론문).

- 아트 디렉터는 프로 단체에서 무용가로 시작해서 시스템적인 것, 행정적인 것을 배워 제너럴 디렉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시스템이 없다(제임스 전).

3. 지원 제도의 한계와 방향성

- 공연은 많아지고 있지만 작품을 위한 작품이 아닌 지원 제도에 따라가기 위해 생산되는 작품 때문에 공연 보기가 싫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김서령).
- 무용가 개인의 일생을 길게 생각하고, 과시적 효과보다는 예술이 진정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문애령).
-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히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원 제도에 예외를 적용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술가들을 키워내야 한다(문애령).
- 무용 부분에 할당된 25억 원의 예산은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발레단의 1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너무 적다(박호빈).

※현재는 단체 운영 형태나 작품 활동 및 규모의 차이 없이 소액 다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로젝트와 단체의 가중치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제임스 전 토론문).

※경우에 따라서는 안무비를 포함한 전액 지원도 필요하다. 직업 안무가는 작품을 공연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므로 생계비까지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문애령 토론문).

- 직업 예술 단체와 독립 예술 단체는 환경이 다르다. 작품 하나를 만들어도 연습실부터 무용수를 쓰는 것에까지 차이가 많은데,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김서령).

• 대학 무용단과 프로 무용단을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프로 무용단에 비중과 힘을 실어주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김서령).
• 지원 대상을 전문 무용단으로 제한하거나, 전문 무용단, 준직업 무용단, 대학 무용단 간의 지원 규모를 달리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박호빈).
※직업 무용단, 준직업 무용단, 프로젝트 무용단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제작비 및 인건비 지출을 확대하여 직업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제임스 전 토론문).
•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당장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절충안으로 교수들이 공연 활동을 하더라도 교육적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김서령).
※교수의 연구 발표는 소액 다건으로, 전문 창작을 지향하는 단체는 안무비를 포함한 집중 · 지속 지원으로 사업 범주를 다각화해야 '맞춤형 예술 지원'이라 할 수 있다(문애령 토론문).

4. 지원 사업 및 제도의 개선

• 3년 동안 집중 지원하는 공연예술 단체 집중 육성 지원 사업은 정말 좋은 제도였다. 무용단의 중 ·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단원들에게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었다(김서령).
※상주 제도가 갑-을 관계처럼 공연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 단체의 자생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체 집중 육성 지원 사업의 부활이 절실하다(제임스 전 토론문).
• 직업 단체가 있어야 훌륭한 안무가, 무용가도 나오고 예술 교육 · 관객 개발도 가능하다. 창단한 직업 단체에 최소 3~5년 동안 집중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한다(제임스 전).
※문제점이 많은 각 문화재단의 소액 다건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의 경우도 쪼개기식 지원 제도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호빈 토론문).
• 사후 지원인 공연예술 창작지원 기금의 경우, 대관 일정으로 심사를 받지 못해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봤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김서령).
• '선택과 집중'은 좋은 제도지만 아까운 돈을 의상비에 잔뜩 쏟아 넣는 단체가 생기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 제대로 공연할 좋은 단체를 뽑아내는 눈이 필요하다(문애령).
• 무용가들이 무용을 예술이 아닌 생활 수단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5년만 인간 중심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간다면 예술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문애령).
※군 면제를 위해 무용을 했고, 생활을 위해 강사 생활을 하며, 교수가 되기 위해 박사 과정에 입문하는 동시에 공연을 지속하는 슈퍼맨들이 경쟁하는 곳이 무용계다(문애령 토론문).
※20대 무용가가 3년 연속으로 창작 지원 수혜를 받았다면, 그 후에는 무용 활동을 멈추지 않는 한 기금 지원을 보장하는 연계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문애령 토론문).

- 국립발레단 무용수들을 보면 30대에 은퇴하여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이 관행인데, 평생 예술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제임스 전).

※예술적 열정이 너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없도록, 지원 정책이 만들어 낸 미아인 중견 무용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문애령 토론문).

- 안무자가 일을 할 때 개인 돈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항목이 없어 안무비를 뺄 도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영수증 조작 같은 편법이 조장되기도 한다(문애령).
- 아트 디렉터 육성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인재를 키워야 한다. 나중에 극장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면 이 사람들이 디렉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호빈).
- 기록 없이 사라지는 공연들이 많은데, 박사 과정 수료생 등 평론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을 연계시켜 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다(문애령).

※보다 적극적으로 무용 비평의 지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평론가가 잡지에 발표한 글을 모아 개인 비평집을 내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의미가 있다(문애령 토론문).

- 무용 연구 · 서적 쪽도 매우 취약하다. 통합 웹 시스템이 갖춰 진다면 일반인들이 접근할 기회도 보장되고 무용인들의 외국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김서령).
- 클라우드 펀딩에 굳이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체들이 선정되고 있다. 의지를 갖고 있는 작은 단체들에게 문을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김서령).

5.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외 사업 개선

- 상주 단체 지원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극장에 연습장도 없고, 홍보나 제작 지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정해진 날짜에 공연만 하고 있다(김서령).
- 큰 극장은 무대 스태프를 갖추고 있으므로 상주 단체 시스템을 통해 극장과 예술 단체 간 상호 관계를 구축해서 좀 더 나은 제작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제임스 전).
- 인력이나 자금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 극장과 이에 잘 맞는 단체를 서로 매칭하여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주 단체 시스템을 정착했으면 좋겠다(김서령).

※2~4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극장은 상주 단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성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 ·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제임스 전 토론문).

※한 시즌에 집중되는 지원은 일정 조정과 지역 분할을 유도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지방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박호빈 토론문).

음악

음악 장르 지원 사업 진단

1. 행사 개요

- 음악 장르 지원 사업 진단
- 일시: 2012년 10월 12일(금) 10:30~12:30
- 장소: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 참석자
  - 좌장: 왕치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문위원)
  - 토론자: 박상연(화음챔버오케스트라 대표), 박준영(경희대학교 교수, 지음 대표), 최덕식(빛소리오페라 단장, 광주대학교 교수, 성악가)
  - 배석자: 이종국(예술지원부), 임기현(국제교류부)

2. 우리나라 음악계의 풍토

- 창작곡 연주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학교로 갈 실적을 쌓기 위해서 좋은 공연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음악계 풍토 때문이다(왕치선).

- 이는 우리나라 음악계가 교육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교육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음악계가 돌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박상연).
- 항상 같은 레퍼토리와 프로그램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창작 연주가 부족한 것은 이러한 연주 중심의 음악계가 갖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박상연).
- 연주자들이 예술가적인 마인드가 바탕이 된 음악회보다는 안전 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풍토는 청중이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청중을 이끌어 가는 것은 평론가이다(박상연).
- 우리나라의 음악 평론은 첫째, 돈이 되지 않고, 둘째, 원하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없고, 셋째, 명예가 되지 않아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견디기 어렵다(왕치선).
- 음악 평론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교육 중심의 메커니즘에 원인이 있다. 공신력과 예산이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박상연).
- 지방에는 좋은 작곡가들이 많은데 페스티벌에 가지 않는 한 들어 볼 기회가 없다. 지방과 서울이 외국보다 더 먼 느낌이다. 지방끼리는 더 멀다(박준영).
- 상주 단체는 매우 좋은 제도지만 지방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콘셉트 같은 것들이 전부 바뀌어 버리므로 창작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박상연).
- 융복합 장르는 창작자들의 책임이다. 작곡가들이 새로운 예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지 않았으며 남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왕치선).
- 음악계 전체 판을 읽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인력 부족 때문이겠지만 음악 전문 인력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왕치선).

3. 지원 사업 및 제도의 개선

- 창작 음악은 재연이 중요하다. 누군가 창작 음악을 재현하여 D/B화할 경우, 작곡자에게 일정 금액을 준다면 연주자의 곡 선택이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박상연).
- 평론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예술성과 완성도에 따라 평론에 권위를 실어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주는 것은 어떨까(박상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일간지에 인문학적 시각에서 음악을 바라보는 글을 게재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일반 독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로 발전할 것이다(박상연).
- 가장 큰 딜레마는 퀄리티 위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지역을 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지역 간 인적 교류가 안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다(왕치선)
- 상주 단체에서 작곡가 한 분을 위촉해서 초연 및 과거 작품을 연주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상주 단체들에게 작곡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최덕식).

- 상주 단체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사업에 대한 정교함 없이 급히 추진했다. 지원 시스템의 관리 · 감독 체계가 매우 복잡한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왕치선).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따라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새로운 융복합형 장르와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박준영 토론문).

※음악가 D/B 구축과 위촉 실행 결과물 축적, 신진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공신력 있는 평가단 및 평론팀 구축 등이 필요하다(박준영 토론문).

4. 지원 방식의 개선

- 탈락 단체 중에는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단체들도 많다. 올해 탈락하면 다음 해에 가산점을 준다거나 패자 부활전을 마련하는 등의 배려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박상연).
- 주관 없는 공평 분배보다는 '목적이 있는' 공평 분배가 필요하다. 창작곡에 1억 원을 지원하면 그중 2000만 원은 작곡가에게 가야 한다는 명시가 필요하다(최덕식).
- 융복합 장르는 체험이 중요한 분야로, 계획서에 따른 사전 지원보다는 실제 현장을 보고난 후 개인 · 단체를 격려하는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박상연, 왕치선).

※신인 및 신진 음악가 지원 사업은 각 대학 및 기관 등이 추천하는 추천제와 심의제 등 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최덕식 토론문).

※문화예술 지원, 교부, 사후 보고서(세금계산서 등) 등의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모든 단체들이 예술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박준영 토론문).

※국제 교류나 페스티벌 같은 큰 규모 사업과 일회성의 작은 규모 사업이 지원금상 별 차이가 없는데 좀 더 현실성 있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박준영 토론문).

※큰 규모의 창작 오페라, 관현악 등에 대한 지원은 없고 주로 실내악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박준영 토론문).

시각예술

시각예술 장르 지원 사업 진단

1. 행사 개요

- 주제: 시각예술 장르 지원 사업 진단
- 일시: 2012년 10월 12일(금) 10:30~12:30
- 장소: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 참석자
  - 좌장: 이충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토론자: 김노암(아트스페이스 휴 관장), 박성태(서울문화포럼 총괄이사), 윤진섭(호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배석자: 이한신(아르코미술관 관장), 김찬동(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전문위원)

2. 지원 심의 제도 개선

- 지원을 받을 때 과연 나에 대해 알고 돈을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르코가 전체 시각예술가에 대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박성태).

-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심사가 너무 짧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성과 시각예술에 대한 전망을 담아낼 수 있는 심사 제도가 필요하다. 선정 사유를 공개하는 등 심사 과정에도 충실해야 한다(박성태).
- 심사 과정이 좀 더 길고 깊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각예술 지형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박성태).
- 심사 참여자들에게 심사 과정과 결과가 공정했다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 심사 과정을 전부 촬영한 후 공개하여 왜 탈락했는지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이충기).
- 심사 과정 공개는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심사위원들이 침묵을 지킬 수도 있다. 외부 공개가 되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결국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윤진섭).
- 공개하면 발언을 조심하게 되겠지만, 심사위원을 밝히지 않고 지적 사항만 공개한다면 탈락 사유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이충기).
- 새로운 지원 분야를 만들고 예산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심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김노암).
- 표를 만들고 점수제를 채택한다고 공정해 지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게 보이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사람들에게 홍보되어야 인정받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이충기).

3. 지원 방식의 개선

-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계의 생태를 보존하려면 다양한 개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특정 성향이나 성격의 작가들이 예술계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박성태).
-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장르별 지원에서 사업별, 아이템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이충기).
- 현재의 기금 지원은 전시 · 출판 등 결과 중심이다. 앞으로는 스토리텔링이나 리서치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박성태).
- 대규모 비엔날레들이 남는 것 없이 소모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리서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리서치 과정들이 계속 축적되면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박성태).
- 해외 마케팅에 있어 리서치나 스토리텔링 베이스로 간다면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 모든 장르를 묶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에 더 효과적이다(박성태).
- 외국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는 것을 융복합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 활동보다 국내 활동을 넓혀 나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김노암).

4. 지원 사업 및 제도의 개선

- 기존의 문예진흥기금은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 새롭게 제기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빠르게 전환 · 대응해야 한다(윤진섭).
- 지원금 신청 시 페이스북 내 예술 관련 콘텐츠 · 활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SNS를 통한 예술의 공유 문제는 시각예술 분야가 특별히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다(윤진섭, 이충기)
- 과거 IT 열풍 때 유력 작가 500명을 홈페이지로 만든 사업이 있었는데,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로 끝났었다. 이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김노암).
- 40~50대 작가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젊은 작가들이 가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기금은 새로운 작가군을 탄생시키는 데 써야 한다(박성태).
- 민간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위해 일한 사람들의 피로감을 케어해 주기 위한 '올해의 기획자상'과 같은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김노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건은 모두 단기적인 것들이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 작품 선정, 전시와 출판 등을 3~5년 동안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박성태).
-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쪽에도 예산을 들여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제적 · 국내적인 시각예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이충기).
- 우수한 지역 작가와 축제 전문가를 발굴 · 육성해 지역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 간 연계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윤진섭).

5. 정산 방식의 개선

- 소액 기금의 경우에도 카드로 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급기야는 이 때문에 지원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윤진섭).
-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소액 지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풀고 다액 지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김노암).
- 기금 사업의 두 가지 문제점은 심사를 둘러싼 문제와 정산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소액 지원에 대한 불만이 많다(박성태).
- 창작 분야를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카드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 무형의 창작 노력을 가치로 인정하고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다(이충기).

6. 윤진섭 토론문: 시각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

※21세기에 들어 대두된 SNS 기반의 통신 혁명이 문화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다중 참여에 의한 적극적 문화 생산자 및 소비자층의 등장, 손끝의 창조와 미시 담론(게릴라 전술에 의한 사회 변혁 의지)의 등장, 새로운 형태의 행동주의 예술 등장 등이 새로운 변화이다.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담론, 예술적 실천, 문화적 유목의 신환경과 대응 방안, 변화하는 지구 환경과 생태학, 사이버 아트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 미술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예술 창출과 보급을 위한 전략, 스타 만들기 전략, 기업과 예술가의 자매결연 전략, 기업의 기금 기탁 유도 전략 등이 필요하다.

※특색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역 작가 및 축제 전문가 발굴 · 육성 프로그램,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 도시-지역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새로운 문화예술,

New Vision of Culture and Arts,
Consilience and Fusion

통섭과 융합

전문가 포럼

2012. 10.26. FRI

place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새로운 문화예술, 통섭과 융합' 전문가 포럼은 스마트 시대의 저변에 위치하고 있는 통섭과 융합의 개념 및 사례를 문화예술과 기술, 두 가지 방향에서 조망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인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과물을 아르코의 중점 추진 과제인 '융복합 예술 창작 기반 조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크게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통섭과 융합의 개념, 예술과 기술 · 인문학의 융복합 사례,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스마트 지원 시스템 등이 있었으며, 융복합 논의 및 사례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 기획 ·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1부 융복합 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위상

발제1 **융복합 개념과 융복합의 현주소 – KAIST CT대학원 문화기술 융합 사례를 중심으로**
/ 우운택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발제2 **융복합 시대 예술의 새로운 위상과 가치 – 기술 편재 시대의 예술**
/ 유진상 2012 미디어시티 서울 전시 총감독,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발제3 **융복합 환경과 새로운 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방안** / 이원곤 단국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2부 융복합 시대 예술의 현장과 새로운 지원 방안

사례 발표 및 토론

융복합 예술의 실제 – 페스티벌 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희 페스티벌 봄 대표

미디어 기반의 융복합 예술 창작 및 지원 플랫폼 – YMAP의 미디어 퍼포먼스 사례
/ 김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인문학을 통한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의 가능성 – Text Resolution과 You Mix Poem
/ 심보선 인문 · 예술 잡지 〈에프〉 편집위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과학기술 기반의 융복합 프로그램의 실제와 과제 – 로봇 공연의 사례로 본 융복합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확장
/ 전병삼 사회적기업 코이안 대표

대학로 융복합 거점 공간 확충을 위한 사례 비교 및 시사점 / 최흥철 독립 큐레이터

융복합 예술을 위한 실험음악의 위상 – 즉흥음악 실천의 몇 가지 원칙들 / 홍철기 실험음악가

1부 융복합 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위상

발제 1

융복합 개념과 융복합의 현주소
- KAIST CT대학원 문화기술 융합 사례를 중심으로

우운택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Ⅰ. 융합의 개념

-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시공간(時空間)의 확장이 가능해진 '디지로그' 사회에서는 개별 기술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와 요구, 신제품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 '융합(Convergence)'은 '서로 다름'이, '하나로 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고유 성질을 유지한 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통합'과는 구별된다.
-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통합은 융합의 낮은 단계로 간주되기도 하므로, 융합 기술은 형태에 따라 '물리적 통합 기술'과 '화합적 융합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 '물리적 통합 기술'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의 관점에서의 개선 기술(improving technology)을 지칭하며, 혁신성 · 독창성보다는 고도화 내지는 향상성을 목표로 한다.
- '화학적 융합 기술'은 다기능 위주의 '동종 융합 기술'과 혁신성이나 독창성을 목표로 하는 '이종 융합 기술'로 나뉘며, 최근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 융합은 주로 이종 융합 기술이다.

- 융합 분야 관점에서는 연구 형태에 따라 '다학문 간(Multi-disciplinary) 연구',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 그리고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연구'로 구분하기도 한다.
- 단순 결합 수준의 H형 통합에 해당하는 '다학문 간 연구'는 병렬적 관점에서 각 학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방법 등의 확대를 통한 학문 간 연계 연구를 말한다.
- 창조적 분열 수준의 K형 또는 X형 결합에 해당하는 '학제 간 연구'는 이슈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시각을 위해 각 분야의 데이터, 방법, 기법, 개념 및 이론을 통합한다.
- 파급력이 큰 핵융합 수준의 Y형 융합에 해당하는 '초학문적 연구'는 개별 학문적인 관점을 넘어 포괄적인 구조를 탐색하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해법을 찾는다.

Ⅱ. 융합의 현황과 인문-기술 융합

- 최근 융합의 정의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전산학,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현실은 다학문 간 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최근 정부는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3~2017)에서 미래는 기술과 인문학이 융합하고 산업 · 개인 · 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대융합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이러한 미래는 인문-기술-문화-예술 간 전 방위적 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 ·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부문별 · 업종별 융합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그러나 아직은 융합 확산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 등 인프라가 취약하고, 전반적인 NBIC(NT, BT, IT, CS) 융합과 인문-기술 간 융합은 상당히 미흡하다.

Ⅲ. KAIST CT대학원의 문화기술 융합 사례

- '문화기술(CT)'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적 · 도구적인 시스템화 기술의 총칭으로 정의될 수 있다.
-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현대에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시대적 필연이다.
- 따라서, CT가 인문과 기술의 '이종 융합(화학적 융합의 한 유형)'을 신르네상스를 위한 새로운 해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 '이종 융합'은 과학기술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인문-기술 간 구분이 없고, 이질적인 것을 흡수해서 보편 · 조화로운 것으로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문화의 영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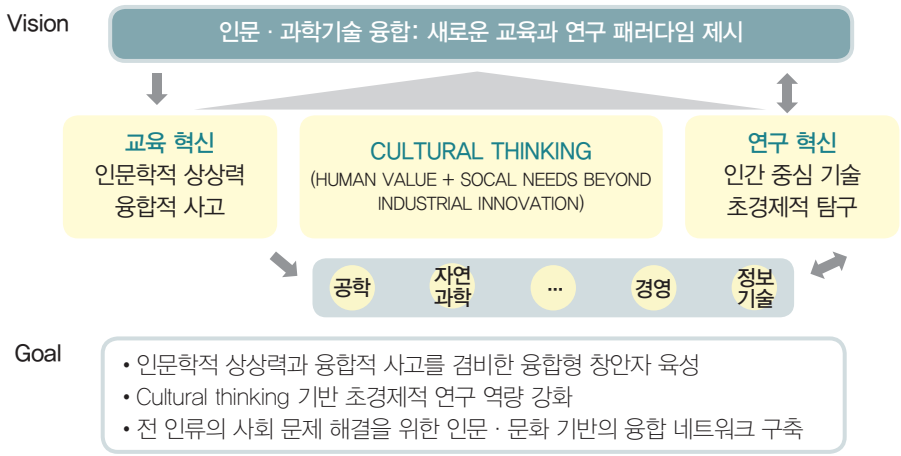
〈그림 1〉 CT의 방향과 기회



1. 설립 배경

- KAIST CT대학원은 인문-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과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CT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05년 (당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 개교한 이후 6년간 17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들은 현재 학계, 산업체, 정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림 2〉 CT대학원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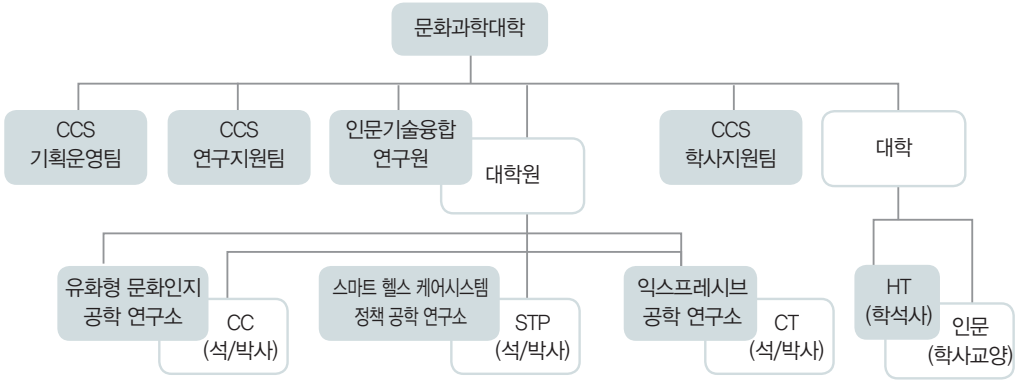


2. 융합 교육

- 교육 목표는 수월성, 유연성, 국제성, 리더십,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갖춘 'CT 리더'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들이 자신과 타인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유도한다.
- 'CT 리더'는 전공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이해 · 소통하고,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종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동시에 세미나, 워크숍,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 · 인문사회학적 지식과 소양, 창조적 경영 능력, 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지식을 겸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CT 같은 이종 융합 기술의 핵심은 균형 잡힌 융합으로, 문화 기술은 '문화를 위한 기술', '기술을 위한 문화', '문화가 되는 기술'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3. 융합 연구 조직

〈그림 3〉 연구 중심 교육을 위한 연구 체계



Ⅳ. 융합의 미래

- '통합'에서 '융합'의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이해, 상호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 '화학적 이종 융합'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수요와 난제에 대해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한다.
- 이러한 용기 있는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꿈(비전)', '땀(열정과 노력)', '뜸(기다림)',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부 융복합 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위상

발제 2

융복합 시대 예술의 새로운 위상과 가치
– 기술 편재 시대의 예술

유진상 2012 미디어시티 서울 전시 총감독,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Ⅰ. 융복합(convergence) 시대, 예술의 새로운 상황

- 융복합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학제 간 연구'나 '융복합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근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와 더블어 발생한 파생 문제에 대한 해결의 요구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 즉 과학기술 발전이 세계 전반의 변화를 가속화 · 복잡화할 때 파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대한 요구가 있고, 이 문제들은 점점 본질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 예술, 특히 시각예술은 1913년의 레디 메이드 발명 이후 이미 융복합적 현실을 재현해 왔으나, 이제는 또 다른 현실의 창조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 "2010년대에 예술이 창조해 낼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은 무엇일까?"라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Ⅱ. 세계의 급격한 변화

- 오늘날의 세계는 한마디로 '기술 편재(technological omnipresence)'의 시대로, 기술이

세계의 모든 부분에 내재되고, 나아가 의식의 존립 방식에 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술 편재는 사건, 사실, 지식, 현상, 의식, 무의식, 사물, 기록, 지리, 거리, 신체, 기관, 소통, 교환, 사용 등의 모든 국면의 미시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까지 모두 개입한다.
- 그러므로 기술 편재는 융복합을 가속화시키고 복잡화하게 하며, 나아가 그 자체를 해결 불가능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제 세계는 본격적으로 기술 편재가 세계의 본질을 구성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범주 전환은 더욱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욱 빨리 진행될 것이다.

1.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변화

- 미디어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국면은 소재(material)와 경로(channel), 그리고 용법(use)의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철학적 · 예술적 의도와 방법을 중요한 이슈로 하는 예술은, 어쩌면 이 미디어 기술의 변화 속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용법을 창출해 가는 분야일 것이다.
- 미디어 기술은 기술 편재라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소재, 경로, 용법의 수준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는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이다.
- 다만, 당대의 기술 편재가 파생시킨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핵심적 기술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 시민사회의 구조 변혁

- 기술적 전개가 이끌어 내는 많은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라는 개념이 구성하는 정체성의 변화다.
- 시민사회의 운동성과 미디어 기술에 영향을 받는 예술의 생산, 소비, 유통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이러한 틀 안에서 "'개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된다.
- '개인'은 각각 상이하면서 독립적이고 완결되어 있는, 세계의 중심이므로 공동체는 수없이 많은 중심들을 갖는 '다중체(multiple)'가 된다.
- 미디어 기술은 이 다중체 구축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중체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선택'해야 하는 세계임에도, 수없이 많은 세계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3. '개인'의 진화

- 오늘날 개인들은 서로 연결 · 접속하고 공유 · 분담하며, 실시간으로 결정 · 참여할 뿐 아니라,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시시각각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낸다.

- 개인은 개별적 허브로 간주될 수 있는 신체와 자신의 활동 영역을 물리적 · 비물리적으로 관장하는 주체로 규정되며, 따라서 융복합은 개인의 수준에서도 요구된다.
- 오늘날 융복합은 개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원하며, 실행하는지에 대한 통찰에 기반 해 이루어지며, 새로운 맥락과 필요에 의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합되고 있다.
- 이러한 범주 전환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문제들'의 압력

- 문제들은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며, 그에 따른 대응과 대안을 상상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 우리 시대의 특징은 기술적 변화에 따른 범주 전환이 세대 간의 사회 · 문화 승계 및 전달의 속도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의 수준을 통찰과 이해, 대응과 대안, 주도적 지배 수준으로 구분한다면, 문화예술 분야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접어드는 수준에 있다고 본다.
- 즉, '다원예술'의 출발과 미디어 기술에 대한 통섭적 접근이 실제 정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Ⅲ. 동시대 예술의 변화

- 동시대 예술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들은 쉽게 인지되거나 수용되지 않는다.
- 이는 현재 자체가 과거의 관성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수없이 많은 세부들에서 상이한 속도와 겹침의 레이어(layer)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 변곡점들은 압력과 저항의 차이에 의해 제각기 다른 지점에서 형성되며, 그중에서도 동시대 예술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변곡점들이 있다.

1. 리터러시(literacy)의 입체성

- 동시대 예술의 생소함과 난해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구성 속에 동시대의 새로운 지식, 정보, 도구, 용법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시대 예술이 이전의 예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는 동일한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이 복수의 매체와 경로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 나아가 동시대 예술가들은 작품의 주제와 이슈마저도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우리는 더욱 심각한 해독의 미로에 빠지게 된다.
- 동시대 예술은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삶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술 감상 역시 동일한 조건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동시대 예술의 입자화

- 동시대 예술은 더 이상 순차적이고 가시적인 패러다임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패러다임들이 동시에 운동하고 있는 잠재적인 다중체가 되어가고 있다.
- 그 안에는 수많은 예술가와 개인들이 마치 양자(quantum)들처럼 각자의 세계를 중첩시키고 서로 삼투하며 동시에 다수의 장소에 연결 · 접속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동시대 예술의 입자화는 미디어 기술이 암시하는 방향성과 신호들과 연동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진화와 맞물려 있다.

3. 예술 제도의 실패

- 오늘날 서구 예술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 전체가 어떤 가치와 이상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은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 현재의 동시대 예술은 가까운 미래에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첨예한 현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 · 시설들도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 기존의 제도 · 시설들이 새로운 유형의 활동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 지면서, 전체를 이해하고 통합 ·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설비, 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 개인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가 변화하지 못할 경우, 경쟁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제도를 도태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임은 분명하다.

Ⅳ. 결론

- 융복합과 기술 편재, 그리고 동시대 예술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동시대 예술은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간 내에서 우리의 존재 의의를 확립해 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 인간의 진화 속에서 기술 미디어와 문화예술의 변주를 통한 현재성의 창조는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사유, 결정, 향유, 감정적 교류에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 융복합은 단지 산업적, 과학적, 정책적 용어에 머물지 않고 문화예술의 실제적인 판단과 결정, 실천과 생산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1부 융복합 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위상

발제 3

융복합 환경과 새로운 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방안

이원곤 단국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 문명의 주역이 매스미디어에서 인터넷으로 자리바꿈할 즈음,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이 '상호 작용성'이었다.
- '새로운 예술'에서 상호 작용적 소통이 중시되면서 예술작품은 작품과 관객이 상호 작용하는 교섭의 장이 되었고, 작업실은 '열린 창조성'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 이러한 만남과 상호 작용, 몰입과 변형을 거쳐 새로운 창발이 가장 가시적으로 실천되는 장이 바로 미디어아트와 예술-기술의 만남 · 융합이라는 일련의 상황들이다.
- G. 들뢰즈와 F. 가타리는 디지털화에 의해 분해되고 다시 장르와 분야를 넘어 하나로 융합되는 현재의 현상을 리좀(Rhizom)이라는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
- 중심이 없으며 사방으로 펼쳐지는 뿌리줄기 식물인 리좀처럼, 미디어아트에서는 다양한 지각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통합적 감각으로 승화된다는 것이다.
- 미디어아트를 통한 전문 기술들 간, 인문학-예술의 통섭과 융복합이 미래 정신문화 규범, 학문 · 예술의 창달, 산업 기술적 성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 결국 많은 나라가 미디어아트를 새로운 환경에 이식하고 배양할 장치, 새로운 시대에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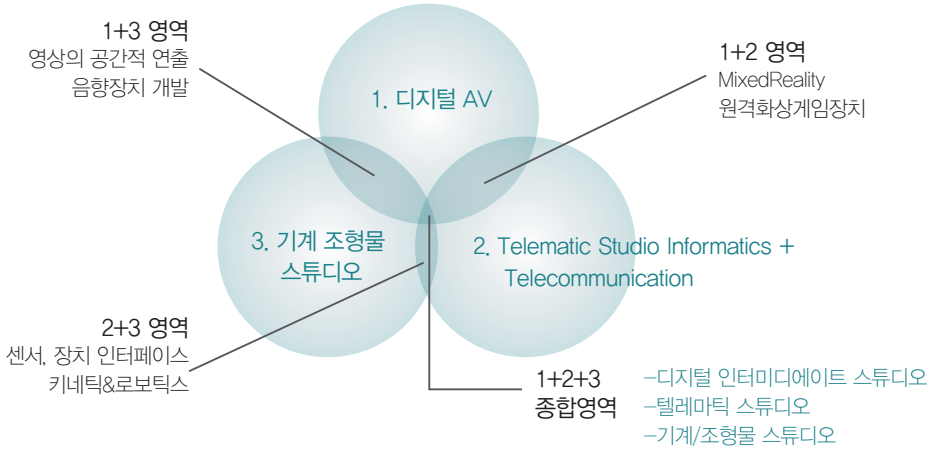
할 메커니즘을 지닌 문화적 장치, 창작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지구는 정보기술이 대기처럼 세계를 감싸는 기술권(technosphere)으로 변모하였다. 오늘날은 모바일 기기를 조작하는 개인이 시대 문화의 주인공이며 그러한 개인 모두에게 창의성이 개방된 시대이다.
- 융합적 예술의 창작 기반은 예술가의 공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경제적 환경, 인문학, 과학, 산업, 교육에 이르기까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 미래의 창작 공간은 이러한 영역과 교류하는 장소, 개방된 자세로 상호 작용하는 인재의 장, 통합된 장에서 일어나는 창작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Ⅱ. '기술적 솔루션의 제공'이라는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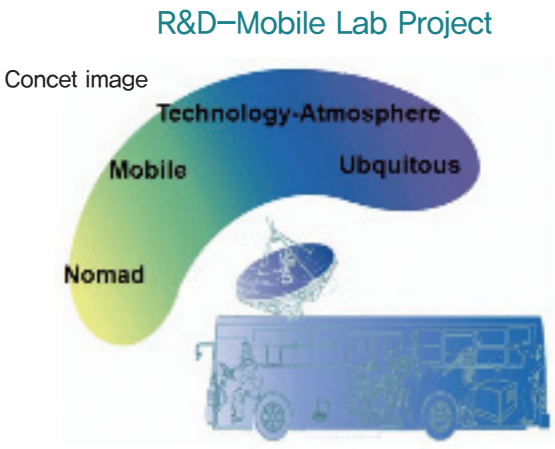
-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의한 예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기 시절에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공학자에게 기술적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미국 과학자 빌리 클뤼버는 E.A.T(Experiment in Art & Technology) 운동을 통해 전담 기술자들이 예술적 아이디어를 미디어 기술로 구현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했다.
- '새로운 예술을 위한 지원'이라는 이슈는 예술가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이나 장치, 장비를 제공하는 일이었으나,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 이는 기계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창작 아이디어와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탓이다.
- 2006년부터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내의 문화콘텐츠제작센터 설립에 참여했던 발제자는 이른바 '통합형 창작 스튜디오'라고 불릴 만한 것을 고안해 낸 바 있다.

〈그림 1〉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을 위한 스튜디오 구성안



• 〈그림 1〉에서 1과 2를 노트북과 주변기기 세트로 대치하여 한 대의 버스에 모든 장비를 장착하고 이동하며 작업하는 모바일 랩(mobile lab)이라는 발상이 실험된 예도 있다.

〈그림 2〉 아시아문화전당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구상된 모바일 랩의 개념도(2006)



• 세상은 모바일화돼 가고 있으며, 해커스페이(hackerspace)와 같이 자유롭게 이합집산 하며 창작 활동을 벌이는 개인들의 군락이 가장 영향력 있는 창작 집단이 될 것이다.
•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화된 시스템 지원, 예술과 기술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교섭력 있는 예술가를 키워내기 위해 창작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Ⅲ. '창작 · 학습의 장'이 되는 공방

• 융복합적 환경에서는 창작과 학습이 본질적으로 유사하거나 거의 합치(congruence or isomorphism: 類質同像, 同形異性)되는 '창작 · 학습'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 '융복합'이란 '복합'(물리적 통합)과 '융합'(화학적 결합)을 합한 말인데, 예술-기술 간 본질적 관계에 대한 이해 내지 접근법상의 차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E.A.T에서는 예술과 기술이 만나고 협업을 실천했지만 그것은 두 개의 다른 문화가 복합적으로 공존한 사건으로, 쌍방 간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 1960년대의 백남준이 E.A.T의 기치 아래 모였던 예술가들과 달랐던 점은, 기술을 스스로 익혀 일정한 수준의 기술자로서 과학기술자들과 협업했다는 점이다.
• 오늘날 미디어아트의 창작=교육 현장중에는 예술가 지망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 · 지원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곳이 많다.

- 대학이 공방과 다른 점은 일정한 교육 과정하에 아티스트의 역량을 키워가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그 교육 과정이 기초 과정의 토대 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 기초 과정이란 20세기 초 산업화 사회가 성숙기에 접어들 즈음, 기존의 도제식 교육 방식에 대한 혁신적 대안으로 등장했던 바우하우스에서 확립된 것이다.
- 그러나 총체적인 환경 변화와 함께 기초 과정이 무력화되면서 융복합 환경에 적합한 기초 과정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미술 교육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 그 결과 미술대학들은 현재 미디어 구사 능력을 기초 과정에 편입시킬 것인지, 편입한다면 기존의 기초 과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과 실천, 양면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 그러나 오늘날의 융복합 환경에서 '위로부터의(top-down)' 지적 패러다임하에 설정된 바우하우스식의 기초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법일지도 모른다.

Ⅳ. 마치는 말

- 복합보다 융합이 반드시 선(善)이 아니듯, 위로부터의 패러다임에 비해 아래로부터의 패러다임이 늘 우성(優性)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계 축들 사이에서 자신의 미션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청중 질문과 발제자 답변

• **질문 1**: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융복합의 관점에서 실제로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의 형식이나 장르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

- 미디어 리터러시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미 만들어 진 것과 기본적인 툴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사운드 툴과 그래픽 툴에 익숙한 아이들이 스토리까지 써낼 수 있다면 아주 큰 성과가 나올 것이다(유진상).
- 두 번째는 책 읽기와 쓰기다. 어린아이들의 모든 활동이 읽기, 쓰기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자라서 무능함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읽기와 쓰기는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전달하거나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유진상).
- 초등학교 때부터 미디어로 쓰고 읽기를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미디어를 다루지 못한다면 과거 문맹들이 겪었던 설움을 똑같이 겪게 될지도 모른다(이원곤).

• **질문 2**: 실질적인 융합 인재의 탄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YES, NO로 간단히 답변 바란다.

-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하는 융합 인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융합이 가능하다(우운택).
- 생산자로서 통합형 인재도 중요하지만 매개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융복합 교육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큐레이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유진상).
- 아직도 일부 대학에서는 융복합 기술을 첨가 기술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수준의 교육제도는 개편돼야 한다. 고등학교를 문과, 이과로 나누는 제도도 폐지해야 융복합 인재의 소양을 갖춘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이원곤).

• **질문 3**: 융합 코디네이터에게 필요한 자질은 어떤 것이고, 산업계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세팅이 필요한가?

- 융합 코디네이터의 역할 중 특히 틈새시장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융합은 목표가 아니라 방법론이기 때문이 그 대상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우운택).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창조포럼

중부권(대전)

2012.10.30. TUE

place 대전문화예술의전당 3층 컨벤션홀

호남권(광주)

2012.10.31. WED

place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영남권(부산)

2012.11.05. MON

place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지역문화 창조 포럼은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을 대주제로 중부권(대전), 호남권(광주), 영남권(부산)의 지역문화 거점을 순회하는 공개 포럼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인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시스템 및 네트워크 강화 등 문화예술의 자생적 발전과 고유 콘텐츠 개발 전략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본 포럼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 및 사설 기관 실무자, 학계 인사, 예술가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중부권(대전)

사회 **최남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연 **지유진** 국악가수

발제1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전략 – 'ARTIENCE PROJECT' 사례를 중심으로**
/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토론1 **송 전** 한남대학교 문화대학원 원장 | **윤성희**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발제2 **문화 향유의 기반 창조와 지역 고유 자원의 창조적 활용**
– 충북문화재단의 아트플랫폼 사업과 충북문화관 운영 사례 /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토론2 **김승환** 충북대학교 교수 | **임재광** 공주대학교 교수

호남권(광주)

사회 **이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연 **꿈꾸는 예술**(성악가 – 정찬경, 김혜미, 임현진 / 반주자 – 이유정)

발제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빛가람혁신도시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이전에 따른 역할 재정립과 지역 협력 체계 개편**
/ **윤성진** 아르코 지역협력형사업평가 책임연구원

종합 토론 **이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진행)
김상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 **김진엽**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문안식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실장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 원장

영남권(부산)

사회 **민준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관

공연 **악樂상相 프로젝트**(강지은, 김현승)

발제1 **청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발전 전략**
–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욱** 부산청년문화수도 집행위원회 위원장

발제2 **국제 교류를 통한 글로컬(glocal) 지역 협력 체계 구축**
– 부산 문화예술, 지역과 세계를 넘는 길 /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 실장

종합 토론 **임 호**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진행)
김원명 경성대학교 교수, 음악평론가 | **김현정**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회 정책위원실 실장
민병욱 부산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 **최학림** 부산일보 논설위원 | **황해순**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중부권(대전)

발제 1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전략
– 'ARTIENCE PROJECT' 사례를 중심으로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Ⅰ. 들어가며: 대전 고유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상

- 상품이 소비자의 마음에 인식되는 모습을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 시장에서뿐 아니라 도시 개발 및 도시 마케팅 방법론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 엑스포 개최(1993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2011년) 이후, '대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의 포지셔닝 전략은 과학에 기반 해야 할 것이다.
- 대전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대전에서는 21세기의 트렌드인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을 추구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이에 대전의 차별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인프라 활용을 제고하며, 문화예술 정책에서의 킬러 콘텐츠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다.
-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 'Artience Project'는 작년 '융복합 예술 주간; Artience Festival'에 이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아닌, '개발 사례'로 소개한다.

Ⅱ. 대전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 'Artience Project' 개발 사례

1. 'Artience'의 개념과 프로젝트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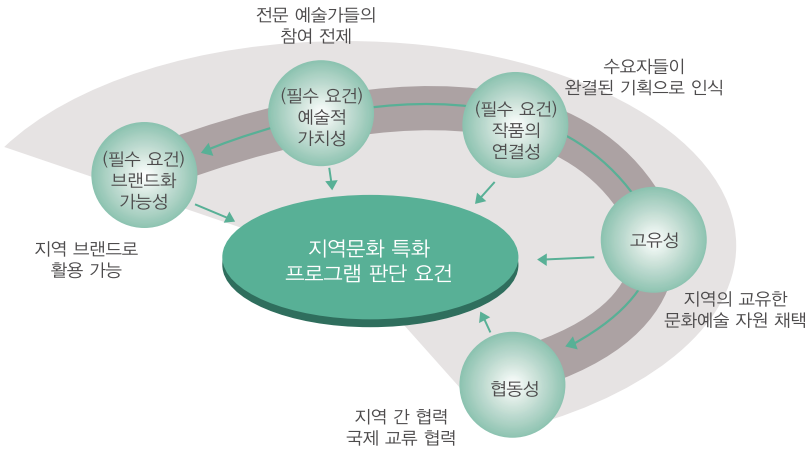
- Artience(아티언스)는 Art(예술)와 Science(과학)의 합성어로,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과정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아울러 다양한 예술 장르들 간의 융복합, 예술 공간과 과학 공간 등 이질적 공간들 간의 융복합을 포함한다.
- 이러한 개념적 지향을 프로젝트화한 배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된 대전의 지역 정체성(local identity)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또한은 과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문화 교류 거점 도시로서의 대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국내에 몇몇 융복합 행사가 있지만, 대부분 대중의 시선이 미약했다. 대전 외에는 문화적 착근성(cultural embeddedness)이 결여되어 있다.
- 무엇보다 이들 행사에서 선보이는 예술과 과학의 융복합 작품은 대부분 미디어아트 또는 디지털아트류로 도시 현장에서 확장적 의미를 구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바탕에 두고 예술과 과학의 새로운 융복합 정신을 구현할 프로젝트가 필요했던 것이다.

2. 프로젝트의 준비와 기획

- 아티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행사들을 조사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Ars Elektronika, 미국 MIT대학의 MIT FAST, 독일 Karlsruhe의 ZKM, 런던의 Alpha-ville Festival 등이 그 사례이다.
-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 보고서 《지역문화 교류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육성 방안》(2011)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획에 적용하였다.

〈그림 1〉 지역문화 교류 및 특화 프로그램의 판단 요건



- 위 그림에서 필수 요건인 '브랜드화 가능성', '예술적 가치성', '작품의 완결성'과 그외 요건인 '고유성', '협동성'은 기본 계획을 설계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
- 이중 '예술적 가치성'은 대전시립미술관이 주관하는 국제미술비엔날레인 '프로젝트 대전 2012'와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 이러한 바탕 위에 프로젝트의 목표를 '대전 특화 창의적 융합 문화 창출과 대전의 대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정하고, 네 개의 전략을 설정하였다.
- 이 전략 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개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이들 모두를 맥락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2〉 2012 대전 아티언스 프로젝트 프로그램 구성 현황



3. 프로젝트의 실행과 평가

- 2012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 한빛탑 등 대전 일원에서 아티언스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내 · 외부 평가 프로세스에 들어갔다.
- 그 결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미래 지향적', '매우 도전적', '매우 고무적'이란 평가와 함께 "지속 가능 발전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자체 평가 회의에서는 기획 면에서 'Art+Science'의 일치된 개념을 담론화 · 의미화하기 위한 노력과 예술 · 과학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홍보 마케팅 면에서는 '아티언스'의 차별적인 이미지 포지셔닝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및 체계적인 아카이빙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더불어 CI 등 홍보 전략 개발 및 예술가 · 과학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Ⅲ. 지역브랜드 개발의 필요성과 의의

- 지역브랜드에는 지역 아이덴티티 브랜드와 지역 산물 브랜드가 있다. 대전의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 'Artience Project'는 지역 아이덴티티 브랜드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은 지역(도시) 브랜드이므로, 이 프로젝트는 대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브랜드 아키텍처 구축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브랜드 개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 경쟁력 강화이다.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성공적인 브랜딩은 해당 지역민의 정주성(定住性)을 크게 끌어올린다.
- 아티언스와 이를 주제로 한 Artience Project는 문화적 착근성이 높은 지역문화 아이콘으로서 대전의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 · 지속화하고자 하는 브랜딩 전략과 노력은 문화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대전의 예술 ·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 상품이라도 상시적 · 반복적 · 대중적으로 전파되어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송전).

Ⅳ. 나오며: 정책적 함의

- 아티언스와 Artience Project는 타 도시와 대전을 식별하게 하고, 첨단 과학의 도시 대전을 보증하며, 과학기술 인프라와 문화 도시에 대한 대전의 지향을 의미한다.
- 오늘날과 같은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의 총합 이상이므로, 각각의 지역 경쟁력은 국가 발전을 위한 첫째 요인이다.
- 이러한 지역 경쟁력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브랜딩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역 브랜드는 국가 경영, 지방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마지막으로 지역 브랜드 개발 · 경영의 성공 요건은 지역의 장소적 상품성 극대화,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 창출, 주민의 참여, 지방 정부의 지원과 후원이다.

※융복합 프로젝트 '아티언스'는 영역 간 경계 허물기, 지식과 사고, 학문과 문화예술의 통합 추세에 부합할 뿐 아니라 차별성을 확보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윤성희).

※'아티언스'의 문제점으로는, 과학기술의 인적 인프라가 대전 지역에 착근할 수 있는 방안 및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을 위한 방법적 구상이 간과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과학 융복합 도시가 되기 위한 포지셔닝 실천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는 점도 문제다(윤성희).

중부권(대전)

발제 2

문화 향유의 기반 창조와 지역 고유 자원의 창조적 활용

– 충북문화재단의 아트플랫폼 사업과 충북문화관 운영 사례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Ⅰ. 충북문화재단의 실험적 사업

- 문화예술의 가치는 개인의 취미나 오락이라는 영역을 넘어 지역의 과제를 해결과 시민에 의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연결되는 등 종합적인 지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 특히 예술을 통한 창조성 자극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다. 예술을 통한 문화 도시 건설이야말로 지역의 창조 경제를 구축하는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 경제가 침체하면 예술 환경부터 파괴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예술의 감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문화 정책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 결국 어려운 시대일수록 국민들에게 문화적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북문화재단은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Ⅱ. 문화 소비자 양성과 예술 인재 활용을 위한 아트플랫폼 사업

• 이는 지역문화의 토양을 가꾸고, 지역에서 생활하는 예술인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질의 문화 소비자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1. 아트플랫폼의 의미

• 아트플랫폼은행정과 기업, 도민들이 협업하여 지역 내 예술인과 향유자가 공감 ·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지역의 감성과 창조성, 행복 지수를 높이는 '창조적인 광장'의 상징적 의미다.
• '충북 예술문화 플랫폼'은 도민의 총행복도(GNH)를 높이기 위해 예술가, 문화 단체, NGO, 지방 자치단체, 교육청, 기업이 협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감상형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지역 상생의 교두보를 말한다.

■ 학교 프로그램

• 아티스트를 학교에 파견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서 창조성과 감성을 키우게 한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창조력을 향상시키고, 학력과 조화된 인격을 도야하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 커뮤니티 프로그램

• 문화예술 배달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소외 · 빈곤 계층 및 이주 노동자 · 다문화 가정 대상, 노인 · 양로원 등 문화 사각지대 대상, 그리고 문화 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배달 서비스 사업이다.

2. 아트플랫폼의 추진 체제

■ 플랫폼추진위원회와 예술문화인재뱅크

• 플랫폼추진위원회는 아트플랫폼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조언 · 협력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경제 단체 · 언론 ·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 문화재단 관계자, 도청 관계국 국장,

교육청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 실제 플랫폼을 경영하는 '예술문화인재뱅크(충북문화재단 내)'는 아티스트와 문화 코디네이터 및 메세나 참여자(협찬 구좌 및 노동 기부)로 구성되어 있다.

■ 사무국

- 아트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 조직으로 충북문화재단이 담당한다. 종합적인 조정과 상담(창구), 아티스트와 대상 기관(도민)의 연계, 필요한 인재 발굴 · 육성의 역할을 한다.
- 사무국은 교육청, 시 · 군, 문화예술 단체와의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체험 실시 · 육성 · 연구 · 홍보 · 연대와 협동 기능을 담당한다.

3. 전망과 과제

- 현재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학 등의 분야에서 42개 문화예술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전문 예술가를 파견(20시간)하여 지도를 하고 있다.
- 향후 각 문화 동아리의 활동 수준과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강화하며, 경연 대회를 통해 예술 활동을 고무 · 확산시킬 예정이다.

Ⅲ. 충북문화관의 창조적 경영

- 1939년과 1972년에 건축된 낡은 도지사 관사를 수리 · 활용하여, 열악한 문화 시설의 한계를 문화 프로그램으로 극복하려는 실험적인 노력이다.

1. 충북문화관의 개관의 의미

- 예술 감상의 일상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감성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감정을 육성하며, 여유를 갖는 생활 스타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회관이 많이 건립되어야 한다.
- 충청북도는 73년의 역사를 간직한 충북도지사 관사를 개축하여, 2012년 9월부터 '충북문화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 21세기의 문화 향수는 일반인들이 문화 활동의 생산자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데 충북문화관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려는 것이다.

2. 충북문화관의 경영 방향과 실제

- 충북문화관은 각 장르의 예술 활동에 대응하면서 예술 감상의 터전 및 지역문화 활동의 거점 시설로서 기능하는 다면적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주민의 아마추어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문화 활동의 싹을 틔우고 육성하는 사업, 고유문화 재생 · 창조 사업, 프로예술 · 작품 감상 사업으로 경영 방향을 설정하였다.
- 현재 충북문화관은 북 카페(상설 전시실 82.3㎡, 북 카페 54.2㎡ 등), 숲속의 갤러리(1층 전시실 102㎡, 2층 전시실 107㎡ 등), 야외 공연장(3개)을 운영하고 있다.

3. 전망과 과제

- '문화예술의 거점'으로서 도내 문화예술 단체, 문화 동아리, 학교, 시민 · 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관을 공동 경영하는 자세로 경영해 나갈 것이다.

Ⅳ. 맺는 말

- 아트플랫폼 사업은 3개월간의 실험적 운영을 거쳐, 사업 확대를 위해 '충북예술인재뱅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뱅크로부터 전문 인재를 공급받고 재능 기부에 활용할 계획이다.
- 충북문화관의 경영 사례를 통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농촌의 빈집도 훌륭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 정책의 병폐인 지속성 부족에 대비하여 좋은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예술 중심주의를 혁파하여 공공예술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과제이다(김승환).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계와 예술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중간자 · 매개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존 단체의 사업을 가져와 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임재광).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창조가 아니라, 창조자를 지원하고 창조자들이 창조한 것을 소비할 기회와 역량을 늘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발제자 답변).

호남권(광주)

발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빛가람혁신도시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어려운 단어,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란 용어는 '지역'과 '고유'가 결합하여 중의성을 가진다. '특정 지역의 고유한 문화'인지, '특정 지역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문화'인지 애매한 점이 있다.
- 후자의 예로는 5 · 18을 서사로 구성하여 공연물로 제작한 '광주 브랜드 공연'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점이 문화예술 역량 강화보다는 메시지 전달에 있다.
- 〈쟈스민 광주〉(2011)가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별 다섯 개'를 받은 것이 민주 · 인권 · 평화 도시 광주의 인지도를 높였다고 하나, 문화예술적 역량까지 끌어올렸는지는 의문이다.
- 전자의 예인 '임방울 국악제'는 경쟁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예술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과 국내 유수의 국악 대회라는 점에서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
- 다른 듯 유사한 이 둘의 차이를 연결하는 방안, '품격 있는 문화(예술성)'와 '소통하는 문화(대중성)'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발제의 목적이다.

Ⅱ.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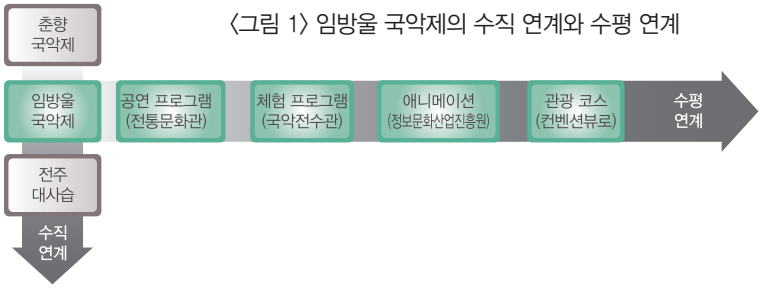
1. 매칭 펀드 VS 역할 분담

-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에서 매칭 펀드는 국가 지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원 부족 상태인 지방 자치단체 부담을 늘리고 사업의 파행만 불러오는 등 폐해가 더 크다.
- 문화예술 브랜드를 논하는 시점에서 프레임을 바꿔 문화 생성 공간인 지역과 그 문화를 끊임없이 소통하며 포장하는 마케팅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 지금까지 지원은 예술인에만 집중되다 보니, 정작 소통해야 할 시민들과 괴리가 생기거나, 마케팅이라는 전문 영역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다.
- 결론적으로 '내가 돈을 낼 테니 너희들도 돈을 내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맡을 테니 너희들은 다른 부분을 맡아라'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해야 한다.

2. 수평 연계 전략과 수직 연계 전략

- 브랜드화하려는 대상이 정해지고 난 후 브랜딩 전략을 수립할 때는 수직적 연계와 수평적 연계를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 수직적 연계는 동일 문화예술 장르 혹은 진행 방식의 유사성으로 묶을 수 있는 다른 도시의 경쟁 상대 간 연계, 즉 다른 도시들의 자원들과 연계되는 것을 말한다.
- 수평적 연계는 특정 지역의 다양한 계층과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여러 문화 형태들 간의 연계, 즉 동일 도시 내의 자원들이 연계되는 것을 말한다.
- 임방울 국악제의 경우(〈그림 1〉) 수직적 연계를 통해 국악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흐름을 공유하며 문화예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 수직적 연계는 동일 장르뿐 아니라 빛가람혁신도시 직능군과 같이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라는 동일 목적으로 지정된 도시의 문화 간 연계에도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림 1〉 임방울 국악제의 수직 연계와 수평 연계



- 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광주라는 지역적 범주 내에서 문화적 도시 환경의 조성부터 인력 양성과 콘텐츠 제작까지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 이 때문에 임방울 국악제의 브랜드 잠재력을 추출하여 관광 코스로 개발하거나 상설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렇게 매체를 다양화하여 수용자 층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으며, 임방울 국악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브랜드로 키워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물론 모든 것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특성에 따라 지역 내 기관들과 연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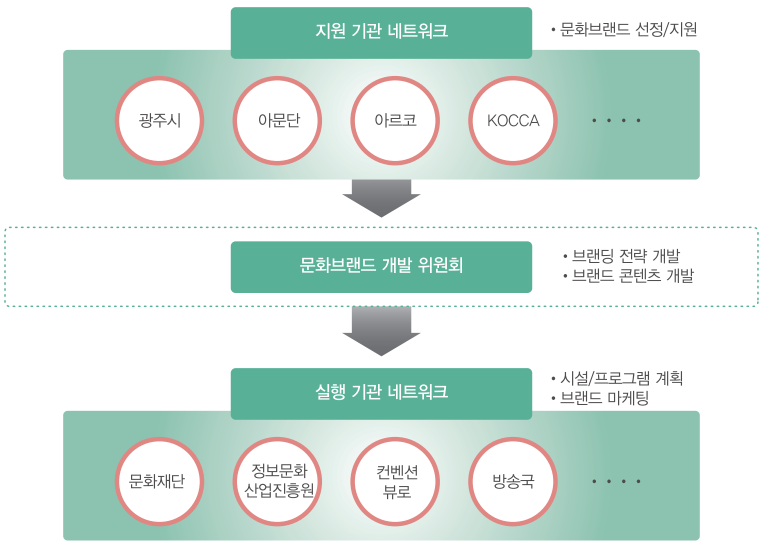
〈표 1〉 수직 연계 전략과 수평 연계 전략의 비교표

	수직 연계 전략	수평 연계 전략
기 준	다른 도시 간 자원 연계	특정 도시 내 자원 연계
목 적	문화예술(혹 브랜딩) 역량 제고	시민 인지도 · 참여도 제고
적정 사업	빛가람혁신도시(직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시)

3. 체계적인 브랜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

- 브랜드 개발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체인 '문화브랜드개발위원회'는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의사 결정의 주체이자 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 문화브랜드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기관과 실행 기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그림 2〉). 다만 아르코 · KOCCA는 공모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림 2〉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협의체 구성안



-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은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 창달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시민'이라 할 수 있다.
- 문화예술가 그룹, 애호가 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까지 포용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문화브랜드의 성공 요소로는 지방 자치단체 중 ·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소재의 고유성, 지역 대표성, 주민과의 관계성, 브랜드의 창의성, 브랜드의 상품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 요체는 '사람'과 '프로그램'이다(김진엽).

※지역의 고유 문화브랜드 육성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공동체적 특성, 서사, 오래된 연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 천착형 콘텐츠, 시간의 경과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박호재).

※3년은 사업에 대한 성과는 나올지 몰라도 철학에 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5년 정도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발제자 답변).

※광주가 옛날부터 가진 것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그치게 되면 브랜드가 굉장히 협소한 개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김상윤).

Ⅲ.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빛가람혁신도시의 한계와 기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빛가람혁신도시'는 외발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광주의 내재된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위기 요소로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
- 지원 기관은 대화를 통해 어젠다를 설정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연계 협력이 추진되어야 자발적 진행과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창출이 가능해 진다.
- 결론적으로 지역 고유 문화브랜드 개발은 기존의 것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하며, 시민 소통에 그 중심이 있다.

※광주는 아시아의 문화 중심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로컬(local)이 아닌 보다 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시아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아시아의 전통적인 문화들이 광주를 거쳐 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상윤).

호남권(광주)

발제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이전에 따른 역할 재정립과 지역 협력 체계 개편

윤성진 아르코 지역협력형사업평가 책임연구원,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08년, 정부의 지역문화 지원 정책이 변화했다. 2009년부터 지역 협력형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 시행되면서 4대 사업 중심의 지역 협력형 사업이 시작되었다.
- 본 발제에서는 원론적이고 이론적이며 철학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한 논의는 가급적 자제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와 몇 가지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이전의 의미

- 2013년 나주(빛가람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중앙'과 '지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는 지난 40여 년간 문화예술 창작 · 보급 지원에서 문화예술 향수, 국제 교류, 지역 문예 진흥, D/B 구축, 인력 양성 등으로 그 임무와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 구성과 '아르코 2015비전'을 보면 문화복지 · 향유 영역의 확장을

감지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역 문예 진흥 · 활성화 기능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 한국의 문예 진흥을 주도하면서 지원금을 설계하고 지역을 지원해 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재지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건설 중인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문화 기관들이 이전해 오면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은 지역 고유성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 2.0 시대에 새로운 도전이자 문화예술계의 체질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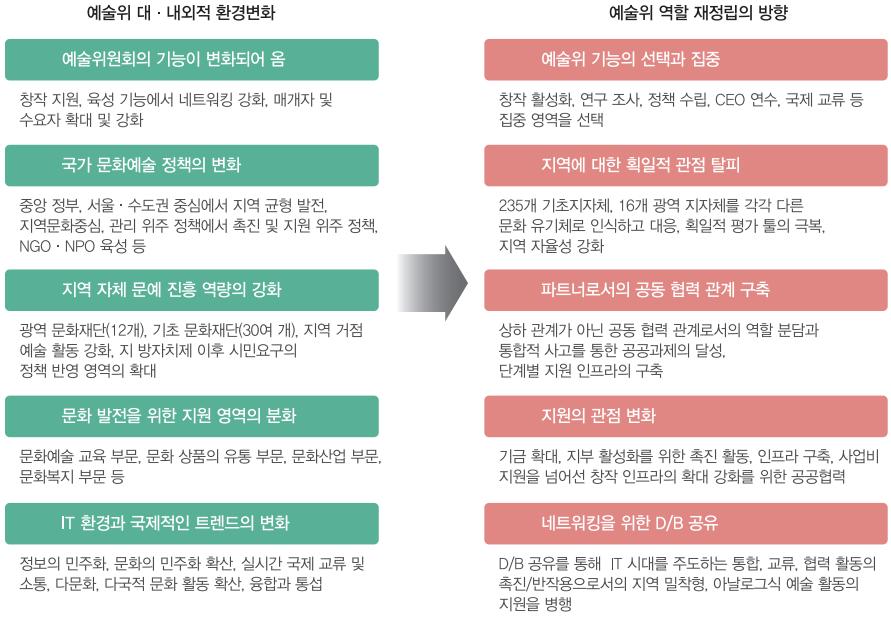
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3년 4기 위원을 구성하고, 새 정부의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달라진 국가 문화 환경에 따른 지원 틀을 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란 지역과 서울 · 수도권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스스로의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술인 · 단체 지원상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도 현 정부 예술 지원의 4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인 '선택과 집중'이 적용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창작력의 제고와 예술 창작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 기능에 집중하면서, 광역 문화재단의 역할 모델과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 더불어 지역문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 이전 이후 지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 이전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국구 지원은 '서울 예술인'들의 몫이라는 고정 관념이 사라지고, '지역 예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서울 역시 16개 시 · 도의 하나로 지역 사업의 대상이 된다면,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 예술인들이 역차별을 당해 왔다는 주장을 해소할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지역'은 공간적 ·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 묶어낼 수 없는 각기 다른 다양한 문화 유기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재정의돼야 한다.
- 즉, '지역'을 단순히 '중앙'에 대응하는 곳 '중앙이 아닌 곳'이라는 단 하나의 실체로 볼 것이 아니라, 각각 독특하고 차별화된 하나하나의 '단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예컨대, 지역마다 심의 체계, 선정률, 지원 설계나 문화 지표들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이를 동일한 '지역'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 수십 년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과 직접 만나지 못했으나, 이제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실체적 이해를 통해 '지역'을 제대로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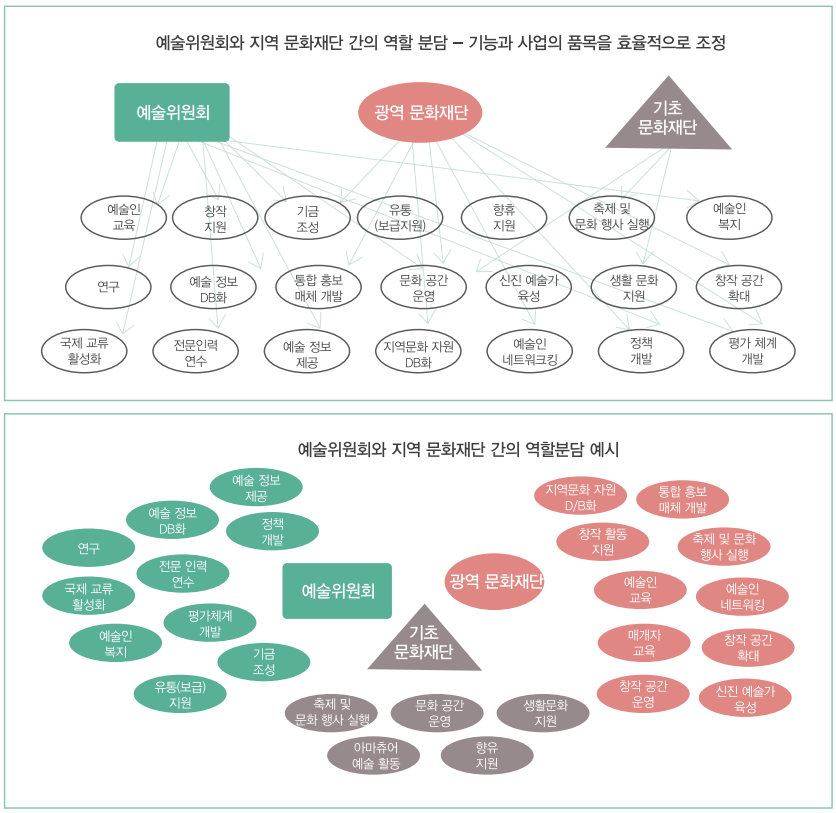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환경 변화와 역할 재정립 방향



-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광역 문화재단, 기초 문화재단과의 역할 구분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전략 · 모델 제시 및 기금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광역 문화재단은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기금 활용의 구체적 분야와 규모 및 대상을 설계 · 지원해야 한다.
- 기초 지방 자치단체는 시민 생활 문화와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 창작 공간을 운영하는 등 실행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여, 3단계의 지역문화 지원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역할 재정립은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지역'과 '지역민'의 관점에서 '예술'과 '예술 지원'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지역 · 권역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 모델화는 위험하다. 따라서 권역별 협의체를 만들어 스스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역할 분담 모델을 만들어 갈 때 역할 분담이나 합리적 자원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김진엽).

〈그림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간의 역할 분담 및 기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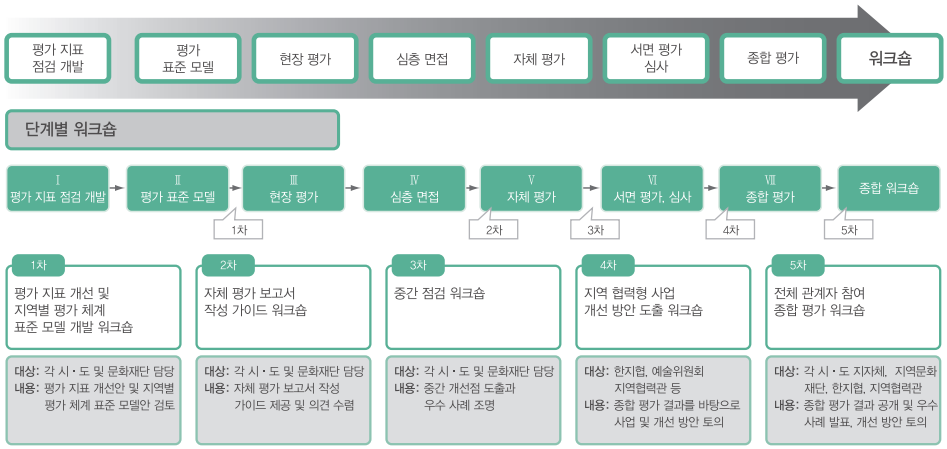


Ⅲ.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지역 협력형 사업)의 추진 현황

- 지역 협력형 사업은 집권화된 지원 행정을 극복하고, 중앙 · 지역 간 중복성을 배제하며 협력 강화 및 지원 정책 특성화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문화를 균점화하는 것 등을 목표로 확대 · 추진되었다.
- 지역 협력형 사업은 기존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 외에 지역문화예술 기획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사업, 레지던스 지원 사업 등을 추가되면서 변화 · 확대되어 왔다.
- '지역 배분형'이라 불렸던 2008년, 276억 원(시 · 도 매칭 액 178억 원 포함)에 불과하던 사업이 2009년 이후 '지역 협력형'으로 바뀌면서 매칭 포함 430~500억 원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 지역 협력형 사업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지역에선 매칭 비율 문제, 사업 자율성 문제 등 여러 개선점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9년도 시범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16개 시 · 도의 지역 협력형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예술계 지원 역량의 동반 상승을 유도해 오고 있다.
- 권역별 평가 워크숍과 종합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지원 시스템과 평가 체계의 개선 요구 사항들을 수용하고, 지역별 개선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왔다.
- 평가는 서면 평가 · 현장 평가 · 심화 인터뷰 · 워크숍 등 다면 평가로 발전되어 왔는데, 수년간 기본 평가 항목과 틀은 유지하면서 내용적인 진화를 통해 평가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 평가의 특징은 지원 · 평가 · 환류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면서 심의 · 선정보다 평가 · 환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주체들의 지원 마인드 개선을 유도해 왔다는 점이다.

〈그림 3〉 지역 협력형 사업 평가 프로세스



Ⅳ. 지역 협력 체계 개편을 위한 개선 과제

- 첫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협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한지협)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협력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 즉 실질적인 협의체로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 수립하기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호남 · 영남 · 중부권에 각 한 명씩을 파견하며, 시 · 도 및 재단의 지역 협력 사업을 자문하고, 컨설팅하며, 평가에 협력할 수 있는 '지역문화협력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 이후에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관의 수를 늘리고 파견 지역을 늘려 지금보다 더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지역 예술인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정책을 각 지역에 직접 전달 · 공유하는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차기 연도 지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안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이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분야별 상담 창구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넷째, 광역 문화재단 협의회, 시 · 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기초 문화재단 연합회 등과 소통하면서, 공동 협력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이밖에도 자율권 확대, Bottom Up 방식으로 사업 개선, 워크숍 · 컨설팅 기능 강화, 상시 모니터링 기능 마련, 그룹별 평가 등급제 도입 등 평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영남권(부산)

발제 1

청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발전 전략
–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욱 부산청년문화수도 집행위원회 위원장

- 최근 여러 지역에서 문화와 창의성, 창조 인력을 기반으로 도시와 지역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이 지역민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의 토대가 되려면 문화예술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넘어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숙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 이 글은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청년문화의 다양한 실천들이 어떻게 부산 문화, 나아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Ⅰ.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의 배경: 개방과 교류의 도시, 부산 문화의 청년성

- 최근 부산의 청년문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 부산대학교 일대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회춘 프로젝트'가 그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인 회춘 프로젝트는 청년문화 단체들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 거리

공공예술, 네트워크 워크숍 등으로 청년문화의 상상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 올해 재단 지원 사업인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는 미래 문화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청년문화가 부산 문화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 '부산'이라는 도시는 그 형성과 발전 자체가 새로운 문물을 장벽 없이 받아들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기질로 점철된다.
-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은 새로운 문화 트렌드의 전파지 · 발원지였다. 특히 대중문화, 청년문화의 견인차와 같은 역할은 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 1980년대 실험적인 청년 비엔날레가 태동하여 오늘날 부산 비엔날레가 되었고, 1990년대 국내 인디음악과 비보이 문화의 주요한 흐름을 부산이 주도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 올해 프로젝트는 이러한 부산 문화의 청년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과 상상력이 모이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청년문화의 중심지라는 부산의 미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

Ⅱ.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의 개요

-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문화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 등 국내의 다른 지역뿐 아니라 홍콩, 도쿄, 후쿠오카, 상하이, 베를린, 뉴욕 등 해외의 여러 문화 단체, 젊은 예술가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발

- 록, 힙합,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하위 장르 음악 공연, 무용과 퍼포먼스, 비디오아트 등이 결합된 복합 청년문화 축제로 기획되어 이틀간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2. 거리 예술: 그래피티 부산

- 그래피티 부산은 도심의 거리의 낙서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현대미술 장르로 발전한 그래피티를 통해 도심 공간에 문화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리 예술 프로젝트이다.
- 그래피티 부산 프로젝트는 독일 출신의 그래피티 작가 ECB(Hendrik Beikirch)와 한국의 Kay2(구헌주)가 참가하여 광안리 지역에서 대형 그래피티 작업을 진행했다.

※그래피티는 할렘 지역 흑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예술로, 그 자체에 사회 · 환경 · 기존 예술에 대한 비평적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메타적인 요소가 강하고 소외 시민에 의해서 일어난 그래피티가 광안리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민병욱).

〈그림 1〉 ECB(왼쪽), Kay2의 그래피티 작품



3. 청년문화아카데미

• 4개월 동안 강의와 더불어 아이디어 개발부터 현장 실무 등에 관한 전문 워크숍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0여 명의 젊은 문화예술 매개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Ⅲ. 새로운 상상력이 넘치는 미래의 문화 도시를 위한 실험, 부산청년문화도시 프로젝트

• 청년문화는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청년의 특성에서 비롯하며 기성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태도로 특징지어진다.

• 이 프로젝트는 청년문화를 당위로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발전 전략에 입각하여 그 역할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문화를 부산 문화의 정체성으로 보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만 부산 문화의 발전 전략으로 내세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문화 프로젝트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대중 · 문화와 만나는 것이 관건이다(최학림).

※산복 도로와 원도심은 부산의 근 · 현대사와 연결된 장소이고 부산 사람들의 삶과 문화의 뇌관이 있는 곳으로, 청년 프로젝트를 이곳을 중심으로 구상해 봤으면 한다(최학림).

영남권(부산)

발제 2

국제 교류를 통한 글로컬(glocal) 지역 협력 체계 구축

– 부산 문화예술, 지역과 세계를 넘는 길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 실장

Ⅰ. 국제 문화교류의 환경 변화

- 글로벌 시대의 문화 교류는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교류에서 상대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로 이전되고 있다.
- 최근 싸이 열풍에서 보듯이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디어의 보급 · 확산은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서 실시간 · 쌍방향의 자유로운 문화 교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중문화 중심의 교류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세계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감성을 길러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 문화 다양성에 대한 지역 간 공감과 공유, 문화적 교감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도시 간 국제 문화 교류가 확산되고 있다.
- 부산의 경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 광역권을 넘어서 일본의 후쿠오카를 비롯한 큐슈 지역과의 초국경 경제권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 사업은 도시 간(local to local) 상호 협력을 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교류 사업의 수평적 네트워크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 중심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본 발표는 국제 문화 교류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의 문화 교류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간 문화 교류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Ⅱ. 국제 문화 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 차원의 국제 문화 교류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교류 사업은 3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문화 교류의 3대 원칙은 쌍방향 문화 교류, 상호주의, 선택과 집중이다.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 문화 교류 예산은 총 3,168억 원으로, 스포츠 분야 1,913억 원, 문화 홍보 561억 원, 문화 산업 417억 원, 문화예술 교류 173억 원, 전통문화 교류 49억 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와 별도로 주요 공공 기관의 2011년도 국제 문화 교류 지원 사업 예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55억 3,900만 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79억 5,400만 원이었다.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서울아트마켓(PAMS)은 우수한 공연 작품을 외국 기획자에게 알리는 사업으로, 2005~2011년까지 117개 작품이 총 500여 회의 외국 공연을 펼쳤다.

2. 부산 지역문화 교류 사업 현황

- 부산 지역 국제 교류 사업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과, 국제협력과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진행하는 국제 협력 사업이 있다.

〈표 1〉 부산 지역 공공 기관의 국제 문화 교류 사업

기관	구 분	사 업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 교류	시립예술단 문화 교류, 국제회의 유치, 문화 관광 프로그램, 국제 행사(영화제, 비엔날레 등)
국제협력과	문화 교류	국제 협력, 국제회의 유치, 자매도시 교류 협력 사업
부산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 교류 홍보	국제 협력 네트워킹, 해외 봉사단 파견, 유학생, 외국인 지원(축제 개최), 유학생 지원 등

- 부산문화재단의 2012년도 국제 문화 교류 사업으로는 아시아레지던시 파견(5개국),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21세기 신조선통신사, Connection Box in Europe(영국)이 있다.

• 교부금 지원 사업으로는 레지던시 지원, 국제 교류 지원, 상주 단체 지원, 창작 공간 지원(또따또가의 '왔다갔다 페스티발') 등 총 여덟 개 사업(총 예산 14억 9,600만 원)이 있다.

3. 국제 문화 교류의 문제점

• 첫째, 국가나 지방 정부의 수교국이나 자매 · 우호 도시와의 교류 및 외교적 협정 등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적인 목적으로 문화 교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 정부의 문화국이 지원 후 간섭과 지원 내용 규제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여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주요 선진 국가와 아시아 국가, 부산 지역의 경우에서는 아시아 국가로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 넷째, 중앙과 지역의 협력 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문화 교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인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

Ⅲ. 글로컬 시대 지역문화 교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1.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의 지역적 특성 및 사업 지원 확대

• 첫째, 교류 주체별 역할 및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 중앙 ·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간, 도시 간 문화 행사와 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민간 차원에서는 공공의 지원을 받되 '팔길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 자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문화 교류 사업을 수행해 가는 이원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 둘째, 국제 문화 교류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국제 교류 전 단계의 추진 과제는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전문화, 창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교류 과정의 추진 과제는 자율적인 교류 사업을 위한 간접 지원, 정부 또는 교류 주체 간 협력, 교류 대상지에서의 기획자와의 협력이다.
• 교류 후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결과 보고를 통한 지역 사회 피드백 등 교류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 셋째, 도시권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지원 체계 구성으로, 큐슈-동남 광역권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 협력 사업을 위한 광역권 단위의 문화 협력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시 · 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나 광역 문화재단 협의회 같은 협력 운영체를 통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이관하여 지역 단위의 문화 교류가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지원을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 교류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안)」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 넷째, 문화 교류가 지역민의 문화적 삶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의 '생활의 문화화', '문화의 일상화' 경향에 맞춰 보다 낮은 차원의 문화 교류도 지원해야 한다.

2. 문화 협력 사업을 위한 지역문화 활동 여건 개선

- 첫째, 지역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 단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수도권 편중 현상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역별 쿼터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 이는 문화 다양성을 위해 적정 기준에 맞춰 지역별로 지원금을 배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을 통해 문화 단체나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 둘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공간 활성화 사업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얼마 전 문을 닫은 부산의 대표적 대안공간인 '반디'의 사례는 새로운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간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 예산의 증액과 함께 '지역별 쿼터제' 도입을 견인해 낼 수 있는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다. 외국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동종 · 이종 문화 공간들 간의 네트워크 추진에 대한 자극과 함께, 지역 간의 '뜨거운 만남 · 교류'도 중요하다(최학림).

※'지역별 쿼터제'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다양성과 문화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정책적으로 예산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수평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황해순).

※'아지트'라는 공간도 '반디'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가난한 청년 예술가들이 저렴한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근근이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김현정).

3. 지역문화 공간 거점화 및 활성화로 문화 교류 발신지 역할 강화

-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삼고,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작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이러한 거점 공간을 매력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부산의 문화예술인들과 외국 예술가들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 부산 지역 국제 레지던스는 현재 세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작년의 '회춘 프로젝트' 서브컬처 네트워크 워크숍은 인디문화의 국제 간 협력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벌, 부산문화재단 지원의 '왔다갔다 페스티벌(부산 · 후쿠오카 문화 교류)'도 글로컬 시대 지역문화 교류의 대표 사례이다.
- 이러한 성공 사례에서 보듯 지역문화 공간을 거점화하고, 창작 레지던스를 활성화하여 지역문화 공간이 문화 발신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4.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문화예술인의 국제 교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류 도시에 대한 정보 부재와 언어 소통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문화 인력이 필요하다.
- 문화 교류 전문가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또는 지역문화재단 협력 사업으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만들어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
- 특히 민간 교류를 위한 코디네이터와 문화 기획자를 양성하여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문화 교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다변화된 지역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산문화재단은 아시아 레지던시 파견에 팀별 코디네이터의 3개월 활동비를 보장하는데, 향후 국제 교류 전담 문화 인력을 두어 지속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국제 문화 교류 결과는 성과 자료집,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등 피드백이 이뤄져야 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국제 문화예술 행사가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가국 수를 늘린 결과, 정작 함께 즐겨야 할 시민들은 소외되고 있다. 국제 교류를 통해 지역성을 극복하는 이른바 글로컬 전략은 내실을 다지며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김원명).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조 도시 부산의 대표 브랜드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부산 문화 저층과 어떻게 접속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 문화 및 부산 시민들과 더 많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최학림).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주최/주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래전략포럼준비소위원회
김희근 위원장 · **박은실** 위원 · **송혜진** 위원
왕치선 위원 · **이무용** 위원 · **이충기** 위원

기획/행정

기획 총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용진** 사무처장

행정 총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용훈**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송시경 정책기획부 부장 · **김창욱** 전문위원
김성범 대리 · **서유미**

추진 사무국 서울문화포럼 **조현희** · **정세연**

지역포럼

지역포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무용** 위원

기획 **이문섭** 위원 · **최남인** 위원
이성겸 예술지원부 부장
민준홍 영남권 문화협력관
황치준 호남권 문화협력관
황진수 중부권 문화협력관

지역포럼 대전문화재단 **이성은** 팀장 · **박종현**

업무 협조 광주문화재단 **정혜영** 팀장 · **이창호**
부산문화재단 **안재홍** 팀장

업무진행

디자인 인디엔피 **양지용** 대표 · **박영미** 팀장

편집 · 인쇄 **정연중** 실장 · **장민혜** 디자이너 · **구소라** 디자이너

현장 진행 이노밸 커뮤니케이션즈 **지미화** 대표
박정현 팀장 · **정샛별** 대리 · **권세라**

업무 협조 **강지은** · **고선주** · **박유림**
왕수봉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조범수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장윤정 대한상공회의소 비상계획실
주홍근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
정은경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
지유진 · **진솔아** · **꿈꾸는 예술**

함께 해 주신 분들

참여 전문가

강신장 IGM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강은일 해금플러스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노암 아트스페이스휴 관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
김병호 전 아시테지코리아 이사장
김상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김서령 이오공감 대표
김성희 페스티벌 봄 대표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김승환 충북대학교 교수
김원명 경성대학교 교수
김정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김주영 소설가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 실장
김진엽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김찬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전문위원
김현정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회 정책위원장
김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문안식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문애령 평론가
민병욱 부산대학교 교수
박계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상우 소설가
박상연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대표
박성태 서울문화포럼 총괄이사
박양우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윤조 주한영국문화원
박장렬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준영 지음 대표
박호빈 댄스씨어터 까두 대표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실장
배순훈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성석제 소설가
손원익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송 전 한남대학교 문화대학원 원장
심보선 경희사이버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안은미 안은미컴퍼니 대표
안치운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양성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어수웅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오생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우운택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윤성진 아르코 지역협력형사업평가단 단장
윤성희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 과장
윤진섭 호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윤호진 에이콤인터내셔날 대표
이승욱 부산청년문화수도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 원장
이원곤 단국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이지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재광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임 호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삼 사회적기업 코이안 대표
전지영 음악평론가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갑영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초빙교수
정중헌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정현욱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제임스전 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최덕식 광주대학교 교수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최학림 〈부산일보〉 논설위원
최흥철 독립 큐레이터
한만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허윤정 북촌창우 대표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홍정선 인하대학교 교수
홍찬식 〈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
홍철기 실험음악가
황해순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Roland Davies 주한영국문화원 원장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백서

Future Strategy Forum
White Paper

발 행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일
2012년 11월 30일
편 집 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기획부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
디자인&제작
인디엔피 www.indnp.com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백서

White Paper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주관 2012 ARKO 미래전략포럼 준비소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